



# 천연융복합 소재 마켓 동향분석 조사

2016.10.

# CONTENTS

<b>1. 환경변화에 따른 트렌드 이슈 _ 3</b>
1.1. 산업환경 & 소비자 이슈 _ 4
1.2.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패션키워드 _14
<b>2. 천연융복합소재 마켓현황 _ 21</b>
2.1. 패션마켓 천연융복합 소재 _ 22
2.2. 스포츠/아웃도어 마켓 천연융복합소재 _ 34
2.3. 친환경/리사이클링 융복합소재 _ 45
<b>3. 패션마켓현황과 전망 _ 50</b>
3.1. 섬유산업 경기전망 _ 51
3.2. 패션산업 시장동향 _ 59
3.3. 천연융복합 소재산업의 시사점 _ 64
<b>4. 천연융복합 소재트렌드 _ 65</b>
4.1. 글로벌 소재 조직트렌드 _ 66
4.2. 천연융복합 소재 기획방향 _ 87

본 보고서는 2016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활성화사업 중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1.

## 환경변화에 따른 트렌드 이슈

- 1.1. 산업환경 & 소비자 이슈
- 1.2.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패션키워드

## 1.1. 산업환경 & 소비자 이슈

### 1.1.1. 환경 경제 효율성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화제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되는 기준이므로 환경 경제 효율성의 성장이 주요 우선순위로 자리한다. 점점 더 많은 선진국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실천을 부가 가치가 아닌 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Nielsen의 공공 개발/지속가능성 부서의 수석 부사장 Grace Farraj는 전한다.

환경 경제 효율성은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 공정을 최대화 하는 비즈니스 접근방식이다. 이는 전력, 소재, 물 사용 절감 또는 재활용, 유해물질 및 폐기물 배출 감소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즉, 생산은 유지하되 자원은 덜 사용하고 폐기물과 오염을 덜 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환경 경제 효율적인 비즈니스 사례에 실제로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큰 의문이 떠오른다.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실천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

2015 Nielsen의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브랜드의 소비재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4% 증가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판매증가가 1% 미만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6%가 지속가능한 제품이라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대답했다.

Nielsen에 따르면, "이제 주류 시장의 부유층만이 지속가능한 제품에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서가 기타 소득층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연봉 2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은 실제로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보다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5%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 산업 혁명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진 않더라도 환경 경제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Kering의 지속가능성 담당 수석 책임자인 Marie-Claire Daveu는 기업들은 공급망을 살펴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녀의 팀은 Kering의 환경 수익/손해(EP&L)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사 소재 혁신 연구소에서 환경 경제 솔루션을 개발한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에서는 Gucci 납품용으로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가죽을 생산했고, Stella McCartney 납품용 지속가능한 울을 확보했으며, 페루에서는 공정 방식으로 채굴된 금을 소싱했다.

#### <기업전략>

대다수 기업에 있어 공급망을 평가한다는 건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추후 평가 리소스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NRDC)는 무료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및 Clean by Design

환경 경제 효율성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기업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연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준비를 갖춰야 한다. H&M의 CEO Karl - Johan Persson은 자사의 2014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속가능성은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만, 장기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 1.1.2. 경험주의 중시

"자연과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의복이며,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라고 경제학자 E F 슈마허는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궁극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으며, 자유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WGSN는 2018년까지 저난이도에서 고난이도에 이르는 어드벤처 호텔이 서서히 떠오르며, 나홀로 여행족은 물론 단체 여행족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Visa Global Travel Intentions Study에 따르면 가장 최근 혼자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수가 2013년 15% 대비 24%로 증가했다. 이에 덧붙여,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홀로 여행이 더욱 유행하며, 2013년 대비 16% 증가해 37%를 차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친구, 가족, 배우자와 여행계획을 상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홀로족들이 2018년 모바일 여행 예약의 증가에 일부 기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행 예약 시장에서 모바일 점유율은 2018년에 37%로 증가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800억 달러, 미국은 261억 4천만 달러, 브라질은 177억 2천만 달러로 전 세계 온라인 판매를 이끌 전망이다.

가족 여행도 여전히 증가하며, 이전보다 더 폭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를 리조트 내 다른 공간으로 보내던 시절은 지났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게임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보내는 시간이 주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콜로라도 주 아스펜에 있는 The Little Nell 리조트의 Simon Chen은 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키즈 캠프를 원하지 않아요. 이 리조트는 이제 편의시설보다는 종일 자전거 투어, 스노우캣 트랙터 어드벤처와 같은 경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단체 고객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글로벌 여행 소비는 2013년도에 1조 1,59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명품 브랜드 업체들은 트래블 리테일 마켓을 '제 6의 대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 <기업전략>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점유를 확보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주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부티크 호텔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은 제품 수요와 신규 시장 진출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뉴욕의 Mark Hotel은 Bergdorf Goodman과 제휴를 맺어, 투숙객들에게 Bergdorf 쇼핑 디렉터와 함께 매장개점 전 혹은 마감 시간 후에 쇼핑을 즐길 기회와 함께, 500달러 기프트 카드, 백화점 뷰티 코너에서의 페이스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estHouse 호텔은 3일 이상 체류하는 투숙객들에게 500달러 상당의 Net-a-Porter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고, 투숙객은 객실 전화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퍼스널 쇼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제휴를 고려할 때, 컨셉 호텔을 간과하지 말것: 도심에 위치한 인디 부티크 리조트와 호텔로 구성된 Starwood의 최신 Tribute 포트폴리오와 Zoku 호텔 (현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택/호텔/오피스 겸용 공간)은 안목 있는 여행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요소들을 적당히 갖추고 있다.

여행 업계는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해 깜짝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는 '순간' 마케팅의 선두주자다. 순간 마케팅 업체 TVTY의 Antoine de Kermel은 "소비자들은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면 여행을 예약할 확률이 높고,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통근자들은 문득 바베이도스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한 주 여행을 꿈꾸며 짐을 꾸립니다."라고 전한다 리테일 업체들은 이같은 순간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충동 소비자들에게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관련 상품을 밀어야 한다.



Fogo Island Inn



Ice Hotel



Fogo Island Inn

### 1.1.3. 의식있는 크리에이티브 소비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작, 품질, 스타일 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될만한 제품을 구매하고, 새 옷을 사기 보다는 수선해 입는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신소재와 텍스타일을 적극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들이다. 즉, 의식있는 크리에이티브 세대에게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 소비층에게는 가벼운 강연과 친환경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양심 있는 삶이 변화를 위한 더 큰 촉매제다.

"패션 마니아로서 패션 감각이 있다는 건 바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취향과 의류 생산 방식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의상을 구입할 때도 세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 옷이나 사 입는 유혹을 떨쳐버릴 좋은 방법과도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패션에 더욱 진지하게 다가가야 합니다."라고 Maya Singer는 보그 기사에 전한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앙의 영향이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를 유도하는 초기 자극제 역할을 하겠지만, 이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등 참여를 막는 장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Fear Won't Do it의 연구원들은 전한다.

티나지 않는 제품 또는 브랜드 추천이야말로 이 소비층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서 신발끈이 끊어지면, 이 소비층은 Undo Laces(카본오프셋 크레딧을 사용해 환경 훼손을 제한하는 지속가능한 신발끈)를 언급할 것이며, 제공되는 다양한 색상 옵션과 제품 수명 주기를 강조하고 장기적인 절약의 장점을 인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비층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미국인 5명 중 거의 두 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응답한다. 38%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기준이며 '필요한 기대치'라고 믿고 있으며, 친환경은 곧 사라질 반짝 현상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 <기업전략>

그럼, 어떻게 하면 브랜드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Google, Levi's, Patagonia와 같은 기업 덕분에 지하 운동이 대중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순환 경제는 제조업체들이 폐기물이 모두 사라지는 순환형 공급망을 목표로 자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임시 대여 제품 또는 리스 제품은 비록 처음 나온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한창 주목받고 있다 Mud Jeans는 소비자가 20유로의 보증금과 1년간 매달 7 50유로를 지불하면 청바지를 빌려 입을 수 있는 Lease A Jeans 시스템을 고안했다. 일년 리스 후에는 새로운 청바지로 교환하거나, 구입 및 반품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Vigga는 월정액제로

유기농 면 소재의 유아복을 리스한다.

순환 경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타 방식으로서는 매장 내 재활용 센터 (Levi's, Patagoni의 프로그램 참조) 및 의류수선의 상승세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외에도,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기업들이 "순환형"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여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산율을 높이면 2025년까지 글로벌 경제는 1조억 달러 이상을 생성해 낼 수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1.1.4. 신 표현주의 추구

창의적인 욕구나 취미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2018년에 계속될 전망이다.

창조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두 가지 요소로는 유연한 정체성의 시대에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와 크리에이티브족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덕분에 한때 수년간의 교육과 견습 기간이 필요했던 아트와 디자인 분야가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리며 누구나 창조자와 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밀레니엄 세대는 자신을 창조적이라고 여긴다.

Insites Consulting의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인들 중 64%는 자신을 창조적이라고 응답했고, 브라질(76%)과 미국(73%)의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Wildness 연구에 따르면, Z세대의 80%가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 세대만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또한 창의적인 커리어를 다시 추구하고, 특히 90년대 언더그라운드 페미니스트 핑크 운동에 동참했던 X세대가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이 태어나면서 규정된 특징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자리를 잃고, 자기 표현이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웹사이트 You-Do-You에는 5 Questions With라는 인기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 올라오는 모든 인터뷰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춤, 신체 활동, 아트, 패션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패션 블로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자기 표현을 위한 디지털 공간이 스트리트 스타일 인기 콘테스트에서 선망의 무대로 변화하고 있다.

P1의 마케팅 디렉터 Svante Jerling은 "예전에는 자기 표현이 명품 브랜드, 눈에 띄는 대형 상표, 힘을 잔뜩 준 액세서리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Jing Daily에 전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형에 맞춰 옷을 입으며,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종이라고 제시한다.

#### <기업전략>

Deloitte의 보고서 Navigating TheNew Digital Divide(새로운 디지털 격차 연구)에 따르면, 리테일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온라인 컨셉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상시 온라인에 접속해 있으면, 디지털이 지배하는 동안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아무도 없다면, 온라인 컨셉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라고 전한다.

새로운 표현주의 세대는 끊임없이 영감을 찾고, 디지털 기기는 이들의 개인 큐레이터이자 쇼핑도우미다. Deloitte 연구는 또한 소비자들은 2014년에 비해 매장에서 가격 비교를 하는데 모바일 기기를 30%나 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소비자들끼리 가격 비교 목적보다는 쇼핑 과정 초기에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이 2014년도 판매에 1조 7천 억 달러의 영향을 미친 가운데, 영감을 주지 못하는 온라인은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사례로, Print All Over Me(PAOM)는 다양한 세대에 걸쳐 추종을 얻고 있다. 적시 적소의 이벤트 후원뿐 아니라 (PAOM은 Art Basel에서 성공적인 팝업샵 이벤트 진행), 이 맞춤형 인쇄 업체는 창조적 실험을 강화하고, 제품 판매는 완화된 '브라우저 기반의 몰입형 쇼핑 경험'을 구축했다. 인터랙티브 디지털 이미지와 카탈로그를 선보이는 Nike와 Novembre Magazine의 룩북 콜라보는 이와 비슷한 느낌을 떠올린다.

리테일 업체들은 소비자의 창의력을 빛나게 하는 콜라보 디자인으로 표현주의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런던의 니트웨어 업체 Unmade는 소비자들이 프린트, 컬러, 실루엣 등 컬렉션을 맞춤 제작할 수 있게 한다. Abstract는 소비자의 감성을 사용해 맞춤형 텍스타일 프린트를 제작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매장을 방문해, 컴퓨터 웹캠을 통해 대화를 하고, 알고리즘으로 표정을 분석하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패턴을 창조한다.



### 1.1.5. 촉감의 세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의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촉감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지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Deloitte의 2015 모바일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하루에 11억만 번, 일년에 4천억 번을 확인한다. 한편, 미국인들은 하루에 80억 번 이상 전화기를 확인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스톤의 한 심리학자 Kate Roberts 박사는 "이모티콘은 정서를 전달할 뿐아니라, 부재한 그 무언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소통을 통해 나타나는 어조, 몸짓, 얼굴 표정 및 페로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두 인간 관계를 맺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현대 기술에서는 찾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라고 Desert National News에 전한다. 하지만 일부 현대 기술은 촉감과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이는 촉감의 세대에 주요 우선순위로 자리한다.

#### <기업전략>

Wearable Experiments는 연결된 저지 셔츠를 통해 선수들이 경기 중 느끼는 바를 팬들도 느낄 수 있게 한다. 저지 셔츠 착용자들은 실시간 스포츠 데이터, 블루투스, 연결된 앱을 사용해 임팩트, 심장 박동, 피로, 아드레날린, 흥분 등 선수들이 느끼는 '강렬한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이 셔츠는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럭비 세븐 올림픽 예선전에서 후원사 및 팬들이 시험적으로 착용했다.

Lululemon의 Sensation Innovation 컬렉션은 Hugged Sensation 운동복을 제공한다. 자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운동복은 "친한 친구의 따뜻한 포옹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Lululemon은 "스포츠 심리학, 과학, 디자인을 결합해 세심하게 "가공된 느낌"을 만들어 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각적인 쇼핑 경험이 최근 화제를 몰고있다. 이는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에 있어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모을 주요 전략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판매 공간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브랜드의 모습을 구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소비자가 브랜드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매장에서는 브랜드의 외관, 소리, 향, 느낌 심지어는 맛까지 표현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 감각만 느낄 수 있다."고 Progress Lighting Limited의 자문 Rod Pallister는 전한다.

특히 브랜드의 특성경험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에 있어서, 크기만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스마트한 리테일 업체들은 제품, 브랜드 역사, 그리고 쇼핑 경

험을 짜임새 있게 제공한다.

한국의 아이웨어 업체 Gentle Monster의 플래그십 매장은 제품이 아닌 쇼핑 경험을 정면에 내세운다. 숨바꼭질 분위기를 연출하며 제품이 거의 숨겨져 있는 설치물에서 유리가 침대 위에 놓여진 가정적인 환경까지, 이 아이웨어업체는 내국인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매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또한, 촉감의 세대는 몰입형 경험을 기대하고 친밀한 순간을 제공하는 리테일 업체, 특히나 창조적 과정을 공개하는 이벤트에 끌린다.

"3D 무드 보드"로 알려진 Louis Vuitton의 Series 전시는 방문객들을 디자이너 니콜라스 게스키에르의 디자인, 재단, 패션쇼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자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패션쇼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대중들은 이를 즉시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쇼의 분위기를 느끼고, 강렬한 창의력, 에너지 및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 1.2.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패션키워드

### 1.2.1. 힐링 라이프

2010년 전후, 제 2 IMF를 힘들게 보낸 이후, 소비자의 삶은 더욱 가치지향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1998년 IMF를 보낸 이후 힘들게 맞은 21세기의 전 글로벌 산업군의 키워드가 ‘미래’, ‘테크놀로지’가 아닌 ‘웰빙(well-being)’인 것을 되돌아볼 때 유사한 점이 있다.

웰빙은 정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에 따라 물질적인 산업의 주요 발전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즉, 주요 패러다임을 ‘기술, 경쟁, 표면적인 과시’에서, ‘인간, 자연, 공존, 내면적인 가치’지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의 성장과 우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발한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 즉 인간과 자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들은 어려운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가치, 건강한 삶에 관심을 돌린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관람하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Do sports)로 자극받은 ‘생활체육’은, 1990년대 중반 주 5일제로 붐을 일으킨 주말 스포츠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이며 소비자의 일상복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좀더 복잡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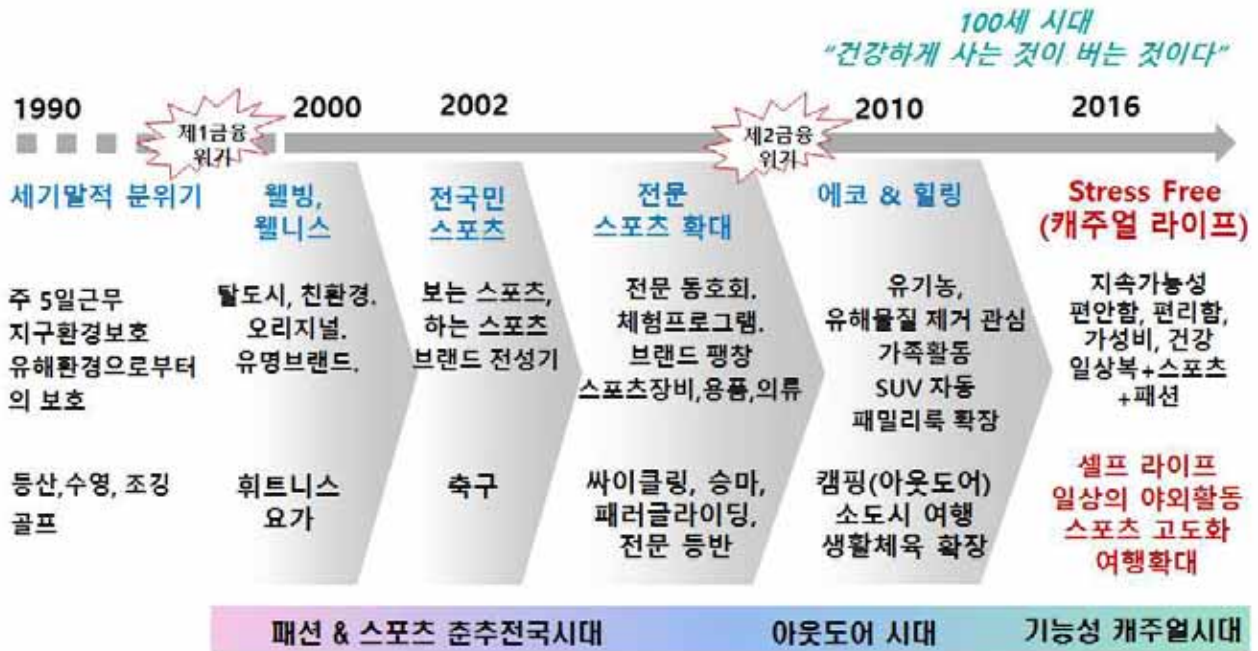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배드민턴, 탁구, 조깅을 하거나, 혹은 좀더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캠핑을 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점차 스포츠를 즐기는 것 조차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더 간단하고 쉽게 도심안에서, 혹은 인근에서 즐기는 가족 야외활동으로 간소화되고 있다.

글로벌 여행 또한 저가 항공사의 출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세팅된 여행상품 보다는 각자의 목적과 형편에 따라 검색하고 찾아다니며 즐기는 탐색형 알뜰 여행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2000년대 중반, 생활스포츠의 붐, 발달된 인터넷 정보검색력으로 싸이클링, 산악등반(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서핑 등의 다양한 스포츠는 매니아 층을 구축하며 의류와 장비, 활동 지역에서 더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의류 및 소재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고 모든 패션복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이 모든 활동과 제품을 통해 ‘Stress-Free = Healing’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감성과 기능의 캐주얼 패션시대 오픈을 자극하게 된다.

# Consumer Lifestyle



### 1.2.2. Healing Life 이슈와 패션제품 방향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고, 100세 시대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와 취미에 대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관련 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회사의 주식은 급등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스마트 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쉽게 지칠 수 있는 운동을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 다양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면서 일상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의 평범한 포멀과 캐주얼 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美)와 건강의 시대” 저성장기 가계 생활 패턴 변화



## (1) 멀티유즈 지향

소비자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또한 다용도의 제품을 요구한다.

Stress-Free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일, 건강추구, 여가생활을 오가며 바쁘지만 여유롭게 즐기길 원한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며, 퇴근시간, 바쁜 교통수단 대신 수킬로를 걸어,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만남,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약속장소로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오피스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어버 라이프(도시속 캐주얼 라이프)가 하루에 이루어 지는 셈이다.

이에, 이 모든 액티브웨어, 오피스웨어, 어반 라이프스타일을 한데 조합한 새로운 스타일, 커뮤니티 패션이 주목 받는다. 이는 기능성을 염두한 디자인 컨셉으로, 현대인의 Superfast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변화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살아온 주 소비자(30-40대)들은, 물가와 불안한 경제활동, 길어진 수명을 고려하고, 누려야 하는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등을 계산할 때 특히 의료 및 생활소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간절기, 갑자기 몇일만데 전환되는 기후변화에, 여러벌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겹쳐입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용도의 제품을 요구한다.



## (2) 편안함과 편리함 지향

정보의 홍수와 일상의 해야할 일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일상 생활제품들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지향하게 된다. 말로 검색가능한 구글검색엔진이나,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나, 주방에서도 폰이나 TV를 켜지 않아도 날씨정보 등을 보여주는 사물 인터넷 기술 장착 냉장고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몸을 좀 더 수고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을 장착하여,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패션제품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장점들을 결합하여 이러한 수요에 맞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지향한다. 본래의 재료의 물성과 기능에, 소비자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맞는 물성과 기능이 더해지게 된다.

의류에서의 편안함은 입기 편안함, 착용감으로부터 도출되어, 인체움직임과 형태를 고려한 패턴구성과, 활동용이성, 무게감, 촉감을 고려한 소재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편리함이란, 가지고 다니기 용이하며, 손질하기 편하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패션소재는 인간의 편안함과 건강함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자연의 최상의 장점을 최고의 과학기술의 재현,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 (3) 인간의 건강, 지구의 건강 지향

지난 가슴기 세정제 사건처럼 일상 생활품목에서 발견되는 유해물질이나,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재료가 비정상적인 식음료에 대한 뉴스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욱더 신뢰있는 건강한 제품을 지향하게 한다.

이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기능의 규정, 품질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되길 요구하며, 인체에 좋은 천연의 재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된다.

또한 훼손되는 자연과 이상기온 등에 대한 기사와 자료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건강에 좋은 것이 지구환경의 건강에 해를 끼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를 입는다는 순환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기에, 최소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윤리적으로 소싱된 천연 재료의 적절한 사용과, 유해하지 않게 가공된 제품을 지향하는, 자연과 과학의 양면적인 가치지향으로 표현된다.





**Development, implementation, verificati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






**오가닉 섬유기준**

국제 오가닉 섬유기준(GOTS)은 세계적으로 오가닉 섬유로 만들어진 섬유산업물(이탈리아는 생산 기준으로서 인식되었음)이다. 이 기준은 높은 수준의 환경, 사회적 정책을 모든 오가닉 섬유 유통망이 따라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현장심사와 특히 독립적인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된 가공업자, 생산자, 거래자의 인증서는 GOTS 감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OTS 인증을 받은 섬유산업의 신뢰성을 보증합니다.

**등록증 &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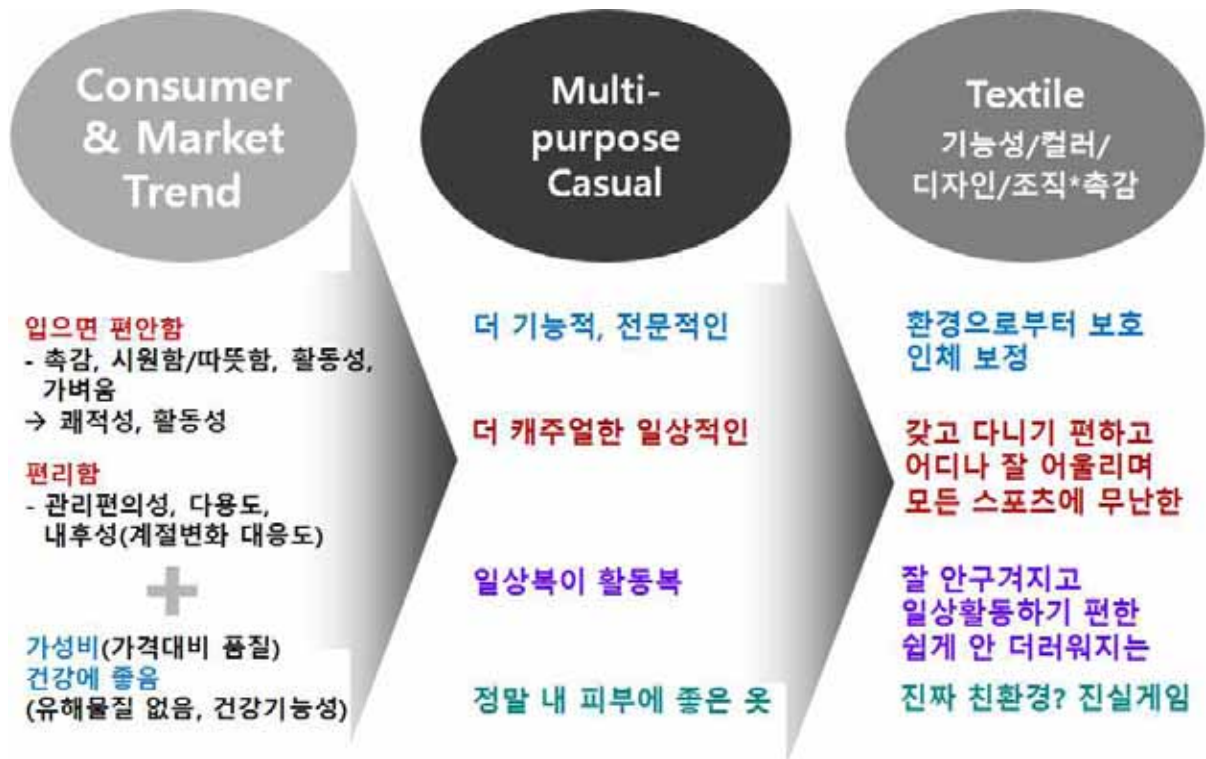
GOTS 인증의 판표와 함께, 인증 받은 업체는 각각의 GOTS 상품에 GOTS 기준과 로고 사용을 포함하는 GOTS 라벨에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인증서를 획득합니다.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인증 주주표는 "등록증 & 라벨 가이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

GOTS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공장명, 지역, 사업분야 그리고 인증 받은 제품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소비자의 이러한 이슈에 따라, 패션제품은

- ①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더 기능적인, 전문적인 방향으로 고도화 되거나,
- ② 모든 활동과 스포츠에 활용가능하며 갖고 다니기 편하고 어디에나 조화로운 생활기능성 형태로 확대되거나,
- ③ 일상복(남성복, 여성복, 캐주얼)이지만 출근 전후, 휴식시간의 개인적 활동까지 소화할 수 있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갖춘 형태로 진화하거나,
- ④ 친환경이란, 친인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명하고 소비자와 공감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본 리포트의 다음 장에서는 특히 천연 용복합 소재가 가장 많이 제시되는 ②번과 ③번의 내용에 주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 2.

## 천연융복합소재 마켓현황

- 2.1. 패션브랜드와 천연융복합 소재
- 2.2.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와  
천연융복합 소재
- 2.3. 친환경/리사이클링 융복합소재
- 2.4. 천연 융복합 소재기업 및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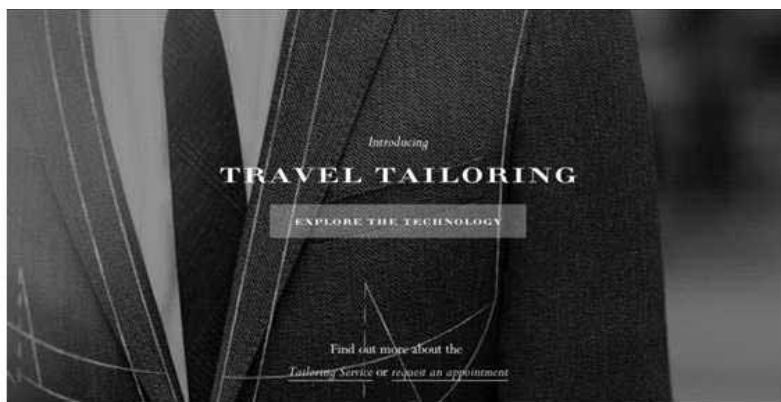
## 2.1. 패션 마켓 천연융복합 소재

### 2.1.1. 해외 남녀/캐주얼 브랜드와 천연 융복합소재

회의실에서 보드워크까지, 스포츠웨어는 더 이상 헬스장에서만 착용하는 의상이 아니다. 애슬레저 트렌드가 계속해서 전 세계 어패럴 마켓에 강세를 보이면서, 업체들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멀티 패션 및 기능성 주요 아이템을 디자인하며, 일상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1) Burberry

긴 여행을 위한 새로운 수트 라인을 발표했다. 이 수트는 입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메모리 소재로 디자인 됐다. 이 소재는 움직임과 탄성이 좋은 울혼방 소재 ‘motion canvas’ 로, 긴 여행 동안 구겨지지 않을 것이다.



**Memory Fabric**  
**Motion Canvas**  
입는 사람 체형에 맞게 형태를  
유지해주고 구겨지지 않는  
비즈니스 수트.



## (2) 폴 스미스(Paul Smith)

‘여행하기 좋은 수트’로 뛰어난 유연함을 지닌, 기능성 원단의 심플한 수트를 선보였다. 메리노 울로 제작된 수트는 구김과 신축성 방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 (3) PIVOTTE

디자인 듀오 Evelyn과 Yehua는 ‘관리하기 쉬운 고기능성’ 브랜드를 지향하며, 일과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디자인을 추구한다. 두 여성 모두 암벽타기, 사이클, 하이킹을 즐긴다.

어반 시크 스타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과 믹스매치할 수 있는 상하복 아이템으로 블랙, 화이트, 뉴트럴 등의 깔끔한 컨템포러리 컬러로 구성된다.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투인원 탱크탑으로 실크 크레이프 드 신과 스판덱스 소재로 혼방처리 되어 정전기 방지 기능과 통기성을 갖추고 있다. 24/7 자켓은 물, 얼룩, 먼지에 강하다.



#### (4) Beta Brand

인하우스 디자이너 Tony Wloch는 자전거로 출근한 후 매일 바지를 갈아입는 것에 지쳐 버렸다. 그가 내놓은 디자인 솔루션은 바로 Half-Day Pant와 Dress Pant Sweatpant다. 하프데이 팬츠는 클래식 5포켓 팬츠로 숨은 지퍼를 통해 쇼츠로 변신가능하다. 그레이 Dress Pant Sweatpant는 슬래시 프론트 포켓과 백 웰트 포켓이 달린 살짝 편안한 팬츠다. 모두 세탁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팬츠의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수트 자켓과 아우터웨어 품목으로 컬렉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5) ADAY

속건, 수분 관리, 자외선 차단, 보풀 방지 등의 기능성이 담긴 원단으로 고급스런 캐주얼 아이템을 제작하며, 스포티한 세련미를 추구하였다. Throw & Roll 레깅스는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드 슬립 포켓이 있고, Crash Cause 크롭탑은 속건 네오프렌으로 제작해 수분을 방출하며, 고강도 운동 후에도 산뜻함을 유지해준다.



#### (6) 퀵실버(Quick Silver)

완전한 기능성 하이브리드 수트 겸 웨트수트인 서핑 수트를 제작하였는데, 저지 네오프렌과 신축성이 뛰어난 ‘드라이 플라이트’ 원단으로 제작되고, 블랙과 네이비로 구성된다. 제임스 본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서퍼들의 경우, ‘파티와 서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텍시도 수트를 확인해 본다. 2,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웨트수트는 현재 완판이다.



## (7) NOAH

Supreme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rendon Babenzien는 2015년 5월 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하며, ‘스케이트보드, 러닝, 글쓰기, 창작, 보트타기 모두 디자인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코듀로이 쇼츠, 실용적인 윈드브레이커, 넉넉한 팬츠를 통해 어반 유틸리티 스타일을 추구하며, 스케이트보드 활동과 회의 시 모두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Babenzien의 시그너처 윈드 브레이커는 탈착형 후드가 달려있고, 블랙 또는 코발트 블루 색상의 방수 코듀로이 러닝 쇼츠로 구성되어있다.



### 2.1.2. 해외 컬렉션에서의 천연 융복합소재

편안함과 기능성(활동성, 쾌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해외컬렉션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패션브랜드는 활동성을 지향하고, 스포츠 브랜드는 패션성을 지향하면서 오버랩되는 스포티 패션의 영역이 패션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애슬레저/여행/일상을 위한 다용도 다기능의 목적으로 내포하면서 개성있게 연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SS, 2016/17FW, 2017SS 해외 런웨이 여성 컬렉션에서 제시된, 주목할 만한 천연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에 대해 살펴본다.

#### (1) Chanel \_ 16SS

기술적인 솜씨로 대변되는 Chanel의 S/S 16 컬렉션은 기하학 자카드, 인타르시아, 퀴트 및 와플 스티치, 랙 립 및 텍스처가 들어간 노티컬 스트라이프 등 폭넓은 테크닉이 등장한다. 캐주얼한 스포츠 룩이 매칭 세트의상, 페플럼 탑, 무릎 아래 기장의 드레스와 같은 정장풍 아이템과 함께 어우러진다. 뽀뽀한 극세사 코튼과 합성 원사로 만든 반짝이는 장식, 메탈릭 및 미래적인 액세서리로 젊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 (2) Jil Sander Navy \_ 16SS

밝은 컬러와 간소한 실루엣을 결합해 신선하고 젊은 느낌을 연출한다. 선명한 그래픽 스트라이프를 베스트, 긴 티셔츠 및 크롭 스웨트셔츠에 사용하고, 유틸리티 데님 및 셔츠 소재와 함께 스타일해 무난하면서도 현대적인 룩을 연출한다. 극적인 단색톤과 메시 오픈워크 스티치를 사용한 픽셀화된 자카드, 블루말드 스트라이프, 퍼넬넥 스웨터를 코튼과 매끄러운 합성 원사로 만들어 간소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한다.



### (3) Stella McCartney \_ 16SS

이 혁신적인 컬렉션은 강렬하고 경쾌한 컬러와 편안하고 캐주얼한 형태를 사용한 앞선 감각의 스포티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폴로 셔츠 드레스와 탑에 드레이프 비대칭 디테일, 사선 패턴, 촘촘한 골지, 시어 오버랩 스트라이프 및 플리츠를 사용해 뚜렷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했다. 실루엣은 길어지고, 핵심 컬러로는 강렬한 브라이트 원색, 블랙 & 화이트 콤비 및 신선한 그린색이 사용된다. 극세사 비스코스 및 합성 원사가 핵심 요소로 자리한다.



#### (4) Pringle \_ 16SS

Massimo Nicosia가 소박한 장인기술을 발휘해 하이테크 스포티 룩을 디자인하면서, 이번 시즌 Pringle는 공예를 현대적인 방향으로 해석해냈다. 핸드 크로세로 뜨개질한 꽃무늬를 간소한 네트 타바드, 미니멀 크루 스웨터에 사용된 전면 니트 메시에 적용하고, 가공 처리한 포인텔 또는 합성 저지 메시는 크로세로 마감했다. 극세사 비스코스 및 폴리 아미드 원사가 촉감적인 말드 코튼과 대비를 이룬다.



#### (5) Marni \_ 16SS

컨템포러리 스포티 니트에 혁신적인 컬러 콤비와 뭉툭한 레이어 효과를 사용했다. 부드러운 브라운, 그린, 라일락의 어두운 색상이 브라이트 옐로우, 스칼렛, 코발트 등의 강렬한 색상과 함께 사용됐다. 극세사 비스코스와 합성 혼방을 사용해 촘촘한 골지와 메시 효과를 완성한다. 타이트한 하프터틀 넥라인을 민소매 베스트, 박스형 타바드, 튜닉 스타일, 유연한 드레스에 사용해 창의적이고 앞선 감각의 룩을 연출했다.



## (6) CHRISTOPHER KANE \_ 1617FW

본인의 F/W 16 런웨이에서 선보인 이색적인 영국 분위기에 변화를 준 화려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바르도 탑, 가디건, 오프숄더 드레스에 이리데슨트 원사를 사용해 유행 중인 메탈릭 룩을 완성했다. S/S 17 시즌의 또 다른 룩인 스포티 크루넥을 기능성 원사로 짜고, 주얼 및 켈스톤으로 뽀뽀하게 장식했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실버 후프와 아일렛으로 가디건에 터프한 룩을 더했다.



## (7) MSGM \_ 17SS

스포츠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들어간 전통 크로세, 솔리드/시어 원사 믹스 등 의외의 조합을 활용한 젊은 감각의 컬렉션이다. 레이어링이 핵심으로, 박스형 크롭크루넥과 에이라인 룩을 타이트한 롱 튜닉 및 탱크탑과 함께 코디했다. 그래픽 감각이 흐르는 이 룩에는 아가일, 스트라이프, 컬러블로킹을 접목하고, 부드러운 코튼과 합성사를 사용한 화려한 러플, 굴곡 있는 플리츠, 오픈워크로 업데이트했다.



## (8) MISSONI \_ 17SS

미쏘니는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컬러블로킹 룩으로 집중 구성된 상업적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다양한 스트라이프를 겹친 밴드는 스페이스 원사와 솔리드 컬러 콤비로 사용해 재미있고 경쾌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유연한 비스코스와 실크 혼방사로 제작된 슬림 핏 드레스, 가디건, 와이드 팬츠 등의 길어진 기장에 아쿠아마린, 애저 블루 등의 산뜻한 컬러를 사용하고, 따뜻한 옐로우, 브라이트 레드, 소프트 어스톤을 함께 곁들였다.



## (9) MIU MIU \_ 17SS

이 재미있고 젊은 감각의 컬렉션은 60년대와 70년대의 빈티지 수영복과 니트웨어에서 영감을 얻었다. 간소한 핏의 티셔츠, 플레이수트, 팬츠 및 크롭 폴로탑 실루엣에 폴퍼션 홀터넥 탑, 벨트, 파인 게이지 기능성 원사 및 비스코스 원사로 된 버튼 스트랩과 같은 정교한 디테일을 사용했다. 그래픽 인타르시아와 티핑은 파스텔 블루, 핑크, 카멜, 브라이트 립스틱 레드 등의 산뜻한 여름 팔레트로 컨템포러리 감각으로 유지한다.



#### (10) SPORTMAX \_ 17SS

스포츠맥스는 세련된 컨템포러리 컬렉션을 통해 기능성 스포츠 원사로 된 매우 섬세한 니트를 선보였다. 실루엣은 에이라인, 트라페즈, 롱 베스트 등으로 간소하게 디자인하고, 드레스 콤비에는 대담한 옵티컬 패턴을 사용했다. 이번 시즌의 핵심 형태인 원형 골지 크루넥에는 윤기 나는 새틴 마감 원사로 된 드로우스트링 끈을 더하고, 물결같은 플리츠는 레드, 네이비, 블랙, 크림 등의 그래픽 팔레트로 물든다.



#### (11) 알렉산더 왕 for H&M

도회적인 느낌의 고급스러운 sports-luxe 스타일의 디자이너 터치가 가해진 남녀 캡슐 컬렉션. 테크니컬한 아웃웨어, 기능성 웨어와 스포티한 디테일을 라이프스타일 아이템과 액세서리로 제시하고 있다. 패션에 기능성을 융합하면서 흡수속건 런닝 탑, 방수 파카, 천공된 레이저컷 쇼츠, 심리스 기능성 티셔츠, 탱크, 스쿠버 미니드레스 등을 선보였다.



## 2.2. 스포츠/아웃도어 마켓 천연융복합소재

### 2.1.1. 스포츠/아웃도어 박람회에서의 천연융복합 소재

기능성 의류는 인체의 고도의 활동성과 쾌적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도화되면서, 활동의 편안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일상생활로 넓어지면서 캐주얼화된 스타일링이 더 확대되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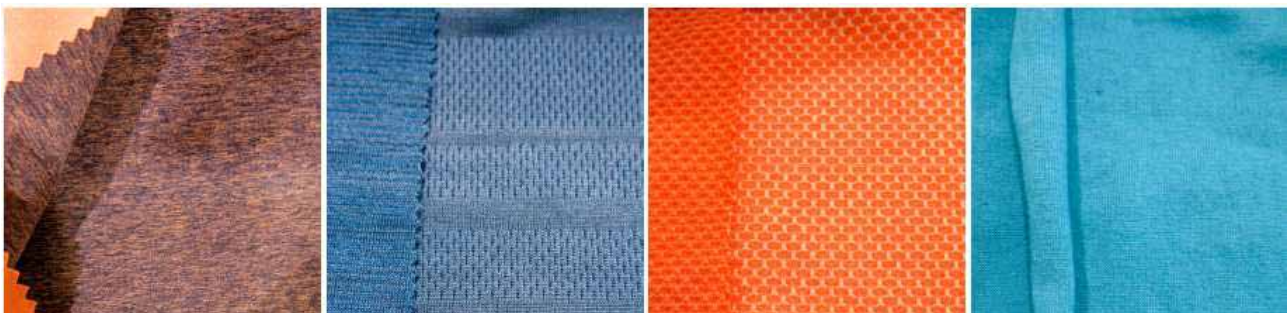
멀티유즈와 가성비, 책임감을 추구하는 소비자에 따라 멀티 스타일링, 천연섬유 혼방, 조밀한 구조, 가벼운 볼륨감,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지속가능성으로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제 애슬레저 트렌드는 혁신보다는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스포츠/아웃도어 원단 박람회인 Performance days 최근 2년간의 출품 소재를 특성별로 그룹핑하여 분석하였다. 시즌에 따라 울, 면을 중심으로 기능성을 내포한 케이폭, 커피 등의 천연섬유가 혼방되어 사용되었다.

#### (1) 고기능 & 경량

<Performnace Days\_18SS>

고성능 베이스 레이어는 모든 아웃도어/스포츠 컬렉션의 기본 요소로, 18SS 시즌에는 향취 관리, 자외선 보호, 쿨링 기능이 기존의 체온 조절, 고신축성, 쾌속 건조, 낮은 마모성과 나란히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같은 원단의 성능이 더욱 견고해진다. 강화된 성능을 위해서는 혼방이 핵심으로, 고급 메리노와 울, 친환경 텐셀과 케이폭 등이 사용되었다.



Evertex Dyeing & Finishing

Thygesen & Birk Fabrics

Polartec

Flocus

본 박람회의 주목할 품목인 소프트 셸은 멀티 혼방과 가벼운 원단을 추구하는 이번 시즌의 핵심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부드러운 신축성과 고기능성을 갖춘 소프트 셸은 메리노, 재활용 코르크 등 천연원사와 합성원사로 구성되고, 다양한 마감처리가 사용된다. 가장 가벼운 소프트 셸은 115gm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비바람으로부터 최고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Premiere Fashion Corp.

FOV Fabrics

LMA - Leandro Manuel Araujo

## (2)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기능성

### <Performnace Days\_1718FW>

필수 아이템의 인기 소재인 말드가 다양한 표면 및 패턴 효과로 머스트해브 애슬레저 베이식 소재로 자리잡았다. 매우 부드러운 촉감, 세컨드 스킨 컴포트, 고도의 신축성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일부 혼방 소재는 최대 21% 스판덱스를 함유한다. 말드 패턴은 흐릿하고 가는, 얼룩덜룩 줄진 효과로 처리되고, 슬러브 니트가 일반적이며, 몸에 붙는 구조, 속건, 체온조절 및 통기성이 핵심이다.



Erictex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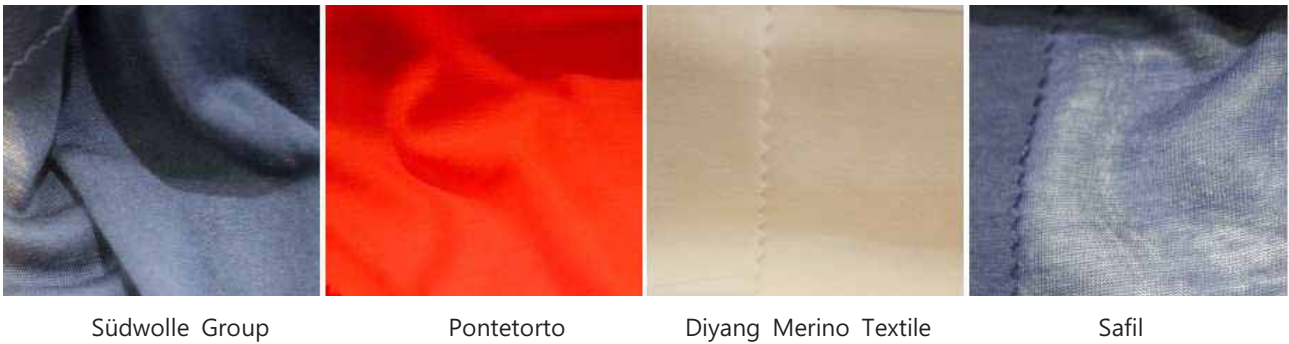
Evertex Fabrinology Limited

Optimizer Brands

특히 박람회의 특별 세션 ‘rethinking performance knits (퍼포먼스 니트의 재해석)’에 맞춰, 하이 퍼포먼스 니트, 촉감과 룩의 혼방 소재가 애슬레저 스타일에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코튼, 스판덱스로 혼방처리된 케이폭이 박람회의 핵심 섬유로 떠오르고, 짙어진 섬유로 부드러운 감촉을 전한다. 기타 천연 섬유로는 실크, 캐시미어, 알파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모두 메리노와 혼방되어 편안함과 기능성을 포함하였다. 케이폭이 가장 주목을 받고, 실크, 캐시미어, 알파카 고급 혼방 소재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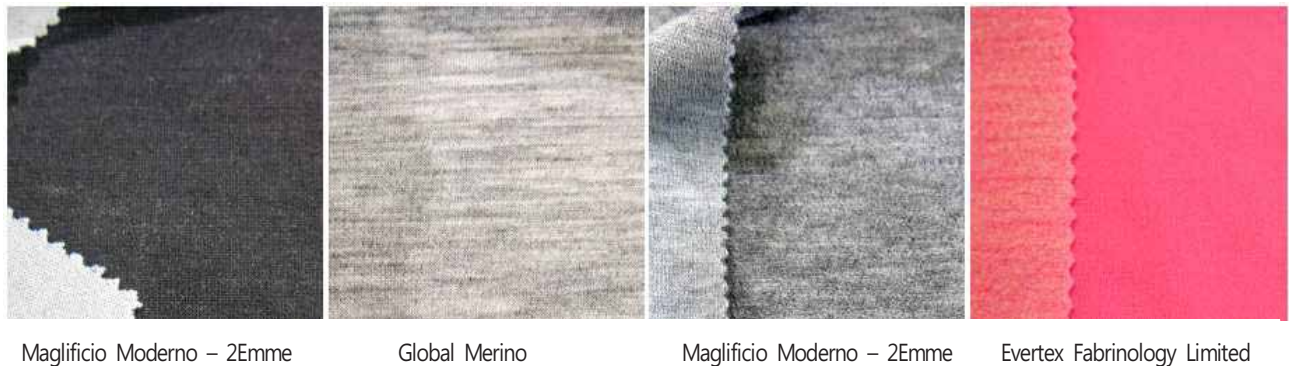


특히, 메리노는 지속하여 프리미엄 베이스 레이어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른 천연 섬유 또는 인공 섬유와 혼방되거나, 100%로 구성된 순수 메리노는 매우 부드러운 촉감, 세컨드 스킨의 편안함으로 강세를 보이며, 뜨고 있는 고급 애슬레저 마켓에 이상적이다. 퍼포먼스 기능이 타고난 이 니트는 악취 제거, 자외선 보호는 물론 체온 조절, 속건 기능을 갖추고, 반투명 슬러브 니트는 마모 처리에 의외로 강하다.



#### <Performnace Days\_18SS>

미드레이어로 메리노가 중요하게 계속 제시되고 있다. 혼방이 핵심으로, 천연 및 인조 섬유를 혼합해 고급스런 느낌을 낸다. 애스렉서리와 고급 스포츠 라운지웨어에 이상적인 메리노 미드 레이어는 부드러운 촉감과 피부에 닿는 느낌이 뛰어나다. 천연 기능을 갖춘 메리노는 향취 관리, 자외선 보호 및 체온 조절, 쾌속 건조 기능을 제공한다.



베이스레이어는 계속되는 웰빙 및 편안한 스포츠 라운지웨어 트렌드에 발맞춰, 메리노, 울, 재활용 원사로 구성된 아름다운 혼방으로 제작되어 촉감과 피부에 닿는 감촉이 뛰어

나다. 천연 기능을 갖춘 메리노는 향취 관리, 자외선 보호 및 체온 조절, 쾌속 건조 기능을 제공한다.



New Wide Enterprise

Hung's Fortune Int'nal

Tai Erh

Diyang Merino Textile

### (3) 캐주얼 외관

#### <Performnace Days\_18SS>

셔츠와 팬츠 원단은 천연섬유로 구성되고, 숨은 기능을 갖춘다. 캐주얼 룩, 부드러운 촉감, 겉보기와는 다른 고성능 및 신축성을 갖춘 원단은 자전거, 등산 및 모든 종류의 야외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다. 유기농 면, 케이폭, 텐셀, 커피 카본 등 천연섬유 또한 중요하다. '뛰어난 바디와 미세 기후'를 촉진하는 이 같은 천연 혼방 원단은 향취 관리, 체온 조절, 자외선 보호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Chia Her Industria

Flocus

Apex

### (4) 지속가능성

#### <Performnace Days\_1718FW>

지속가능성은 애슬레저 트렌드의 핵심 요소이자, 아웃도어/스포츠 시장의 퍼포먼스 품목 전반에 걸쳐 머스트해브로 자리하는 친환경 소재는 재활용, 블루사인 인증, 건식 염색, 윤리적으로 소싱한 메리노 등으로 업계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Polartec

Singtex Industrial Co. Ltd

A. Sampaio & Filhos – Texteis Safil

### <Performnace Days\_18SS>

천연융복합 소재는 S/S 18 시즌의 주요 테마로 자리하고, 혁신적인 원사 혼방이 모든 레이어와 원단 종류에 걸쳐 등장한다. 일부 원단엔 4~5가지 원사가 혼합되어, 개선된 성능, 강화된 내구성 및 매우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원단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모두 사용되지만, 특히 유기농 면, 메리노, 케이폭, 텐셀, 코르크, 대나무, 커피 등의 지속 가능한 재활용 소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Flocus

Lanificio Becagli

Premiere Fashion Corp.

Leandro Manuel Araujo

## ■ Performance Days 의 친환경융복합 기업포커스

### > FLOCUS

지난해 성공을 거둔 Flocus는 자사의 케이폭 기반 섬유 덕분에 이번 Performance Days 박람회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케이폭은 독특한 비건 친환경 섬유로 단열, 향균, 발수 기능을 갖추고, 촉감 또한 굉장히 매끄럽다. 현재 요가 및 스포츠 라운지웨어에 이상적인 강화된 특성과 뛰어난 촉감을 더한 스포츠 전용 원사 혼방을 개발하고 있다.



## > BRUGNOLI

Br4는 Brugnoli의 새로운 바이오 기반 원단으로 환경과 기능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 원단에는 먹이사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 물이 거의 필요 없는 피마자로 만든 원사인 Fulgar의 EVO가 사용된다. 그 결과 Brugnoli 원단은 촉감이 뛰어나고, 드레이프, 고신축성, 쾌속 건조 및 향균, 체온 조절 기능을 갖춘다.



## 2.1.2.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의 천연융복합 소재

### (1) Olympia Activewear

이 호주 브랜드는 여성스럽고 강렬하다. 컬렉션은 메시,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수분 방출 등의 기능을 갖춘 하이테크 원단을 컨템포러리 실루엣과 형태에 접목한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Corfu 탑은 일과 운동으로 분주한 하루에도 산뜻한 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Lynx 팬츠,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트랙 풍의 실크 라운지 팬츠, 드롭 암홀, 측면 절개가 들어간 Santorini 맥시 드레스 등을 포함한다



## (2) DYNE

전설로 불리우는 크리스토버 베번스는 이전에 나이키, 언더아머, 예기와 함께 작업을 했었으며 최근 DYNE를 런칭하였다.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고급 스포츠 브랜드로, 형태와 기능의 조화를 추구한다. 브랜드 철학은 ‘목적 지향적 디자인 제품’으로, 짐(gym)과 스트리트에 모두 가능한 의류에 초점을 두며 이미 팬클럽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적인 진보를 계속 추구하면서, 4계절 가능한 내후성과, 내장된 칩을 통해 착용자와 브랜드의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성이 특징이다.



## (3) State Concepts by Frank & Oak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Frank & Oak가 의복에 기능성 라인, ‘State Concept’을 첨가하면서 액티브 마켓으로 진입하였다. 진보적인 구조와 모던한 스트리트 애슬레저의 기술적 융합으로, 일할때나 여가생활할 때, 균일하게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내마모성, 발수, 오염방지 특성의 고기능성 소재를 전반적으로 사용하며, 고습스러운 면 스타일로, Drirelease 기술을 사용하여 땀을 빠르게 건조하고 최적의 수분조절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향취기능의 Fresh Guard odor control 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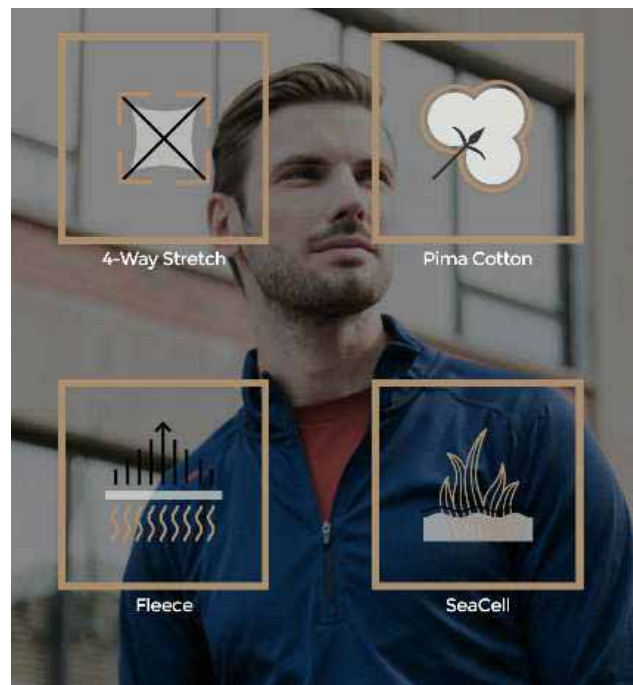


#### (4) RHONE

2013년 론칭한 미국의 프리미엄 액티브웨어 남성 브랜드로, 스포츠영역에서, 혹은 벗어나 모든 남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Polartec Power Dry 구조의 전이적인 범주, 최대의 통기성을 가진 흡수성, 오염과 냄새에 대한 항균 원단을 통합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남성들을 선망하면서, Rhone는 모든 스타일을 영웅을 따라 이름짓고 각각은 “man is not made for defeat”처럼 안쪽 밑단에 표기를 한다.

남성의 짐, 러닝, 하이킹, 바이킹, 요가, 및 모든 활동에 적합한 고기능성 액티브 웨어와 애슬레저 아이템을 지향한다.

장섬유인 피마코튼과 항균소취기능성의 실버테크 원사를 혼방한 프리미엄 컴포트 천연융합 기능성 제품들을 제시하였다(75% Pima Cotton, 10% Poly, 10% XT2, 5% Spandex)



## (5) Arc'teryx

아웃도어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 제품 기획을 프로모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창조하며, 자체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알파인에서 스노울 스포츠, 클라이밍의 모든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최근, 다른 마켓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브랜드 특성상 아웃도어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장점을 살려, 면과 다른 클래식한 소재와 기술로 씨티 라이프에 적용한다.



## (6) MANGO SPORTS

망고는 2014년초에 남성 액티브 어패럴 라인을 론칭하여, H&M을 따라 고기능성 스트리트 웨어에서 스포츠 웨어를 지향한다. 다양한 스포츠를 위해 디자인된 광범위하면서 적절한 가격의 의류범주와 액세서리를 제시한다.

기능성을 핵심으로, 테크니컬한 기능성 원단과 실루엣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다크한 중성색조와 까모 프린트로 제시된다.

면혼방 트레이닝 트라우저, 면나일론 혼방 파카 등, 천연융복합 아이템과 기능성 아이템으로 스트리트에서 스포츠까지 제안하고 있다.



## 2.3. 친환경/리사이클링 융복합소재

### (1) Reverso

이탈리아 텍스타일 소싱업체 Reverso 는 지속가능성을 텍스타일 기술과 재활용 소재에 접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F/W 16 컬렉션에 Gucci를 포함한 브랜드에서 Reverso 소재를 사용한 혁신적인 우븐을 선보였다. 100% 이탈리아산 Reverso 원단은 텍스타일 폐기품으로 만들어졌다.

기능성 제품기업 EXP 4.0 by Schoeller 는 지속 가능하고 세탁 가능한 울을 제작한 최초의 울 마감처리로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Bluesign 및 GOTS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하고 세탁 가능한 울이 나오면서 또한 울과 합성 섬유를 섞은 단일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Texapel은 친환경 울을 포함한 천연 융복합 솜을 제작하였는데, 66% 메리노 울, 34%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되었다.

#### Reverso

모든 원료추출, 제조공정치 추적가능하도록 함



**EXP 4.0 by Schoeller**  
물빨래 가능한 울제품



**Texapel**  
천연융복합 단일재  
66% 메리노 울  
34% 폴리에스테르

## (2) Stella McCartney

'그린 카펫 챌린지(Green Carpet Challenge)' 캠페인은 레드 카펫 위를 걷는 스타들이 지속가능한 소재, 공정무역 소재의 의상과 소품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과 윤리적 패션을 통해 단 하루 동안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길이 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작년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한 스텔라 맥카트니는 이번 파리 컬렉션 기간에 본인의 새로운 그린카펫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아름답고도 건강한 패션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 (3) H&M

H&M Conscious Line SPA브랜드 H&M은 친환경 의류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H&M의 '컨셔스' 컬렉션은 유기농 면과 재활용 플라스틱 병, 텐셀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매년 컨셔스 컬렉션과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선보인다.

## (4) Max Mara Weekend

MaxMara Weekend & Newlife 막스마라의 자회사 막스마라 위켄드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원단업체 뉴라이프와 함께 리사이클링 재료 원사와 최적의 기능성이 가미된 세련된 숙녀감 원단을 구현해내어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재료라는 특징과 함께 100% 이태리 생산이라는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 (5) Aeance

Aeance 는 독일 디자인, 포르투갈 제조 브랜드로, 유러피안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한다. 블루사인 인증을 받고, 혁신적인 소재와 생산으로 친환경적이고 시즌리스한 프리미엄 액티브 웨어를 창조한다.

Hien Le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아주 미니멀한 디자인을 제시하며, 시대를 초월한 전문스포츠적인 감각으로 심 봉제, 레이저 컷 디테일 등, 우월한 구조와 컷팅에 관심을 가진다. 컬러블러킹의 컬렉션은 소비자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의류와 믹스 매치가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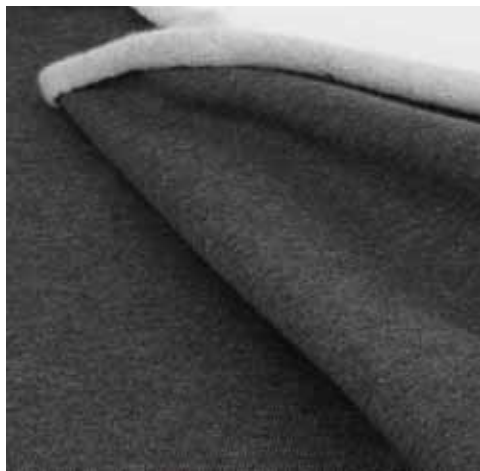
## (6) Adidas & Nike

유기농 경작의 어려움으로 실상 마켓에 활용까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의류 브랜드들이 합작하여 BCI라는 단체를 건립하였다.

BCI는 오가닉 보다는 좀 더 규제가 유연하지만 재배 및 가공 과정을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며, 노동자의 권리까지도 보호 받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디다스나 갭 같은 BCI에 속한 대형 브랜드들의 노력으로 많은 BCI COTTON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100% 친환경 면 소싱을 실천하는 Nike는 유기농 면 또는 Better Cotton Initiative (BCI) 기준 하에서 재배한 면을 전 의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지 업체들은 100% 유기농은 물론 기타 친환경 섬유와 혼방 등의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Herbal Fab는 유기농 면 50%, 대나무로 구성된 저지 50%를 집중 선보이고 있다.



## (7) Lebenskleidung

독일 유기농 의류 전문 회사로, 모든 제품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맞춰 제조되고 있으며, 유기농 100% 의류를 주로 생산하며 최근 유기농 면을 엘라스테인 5%와 효과적으로 혼방해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 (8) Patagonia

30년 역사의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 9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 면을 사용하여 왔다. 리사이클링, 수선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마, 유기농 면, 재활용 나일론, 재활용 다운(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활용 울, 텐젤 리오셀, 천연고무 유렉스, 폐기 울, 폐기 코튼, 데님, 무염 캐시미어를 사용하며, 모든 제품은 추적가능하다.

천연소재의 경우, 100% 혹은 합섬, 스판덱스 등과 혼방하여 제품화된다.



# 3.

## 패션마켓현황

- 3.1. 섬유산업 경기전망
- 3.2. 패션산업 시장동향
- 3.3. 천연융복합 소재산업의 시사점

## 3.1. 섬유산업 경기 전망

### 3.1.1 2015년 경제 실적에 따른 2016년 전망

#### (1) 세계경제 실적 및 전망

##### ■ 세계경제: 2016년 소폭 개선 기대<sup>1)</sup>

##### 2015년 세계경제

선진권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개도권의 경기둔화로 2014년 대비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선진권의 경우, 미국이 견고한 내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대의 완만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유로권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회복세가 부진하였다.

중국을 포함한 개도권은 소비 및 투자,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중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감소 등 내·외수 부진 여파로 '15년 중국 정부가 목표했던 7.0%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무너지면서 6.9%를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경제성장률 전망(IMF, %):('14)3.4→('15)3.1→('16)3.4

• 미국 2.4→2.5→2.6

• 유로권 0.9→1.5→1.7

• 일본 -0.1→0.6→1.0

• 중국 7.4→6.9→6.3

##### 2016년 세계경제

선진권과 개도권의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면서 2015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및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저성장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약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세계교역은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를 예상한다.

\* 세계경제 경제성장률: 2014년 3.4%→ 2015년 3.1%→ 2016년 3.4%

\* 세계교역 증가율: 2014년 3.3%→ 2015년 3.2%→ 2016년 4.1%

미국은 고용과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민간지출 및 내수 주도의 성장이 지속 될 것이나, 연준의 금리인상과 대외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부진 등의 영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1) 한국산업연구원(2016), 2016 의류산업전망 리포트

전년대비 소폭 증가를 전망한다.

일본은 엔화약세 지속으로 자동차, 기계 등 기업의 실적개선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큰 폭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정책 등 경기부양 기조가 이어질 것이나, 개도권의 경기회복 부진과 이에 따른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가 될 것을 예상한다.

중국은 정부의 안정성장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본비용 증가, 내수성장 기조유지 에 따른 수출 감소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낮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 ■ 환율: 2015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2015년 원달러 환율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기대 등에 따라 지속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9월 7일 연 최고점인 1,203.7원까지 상승한 이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 지연과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년 원/달러 환율은 약 1,050~1,210원의 변동폭을 형성하였다.

### 2016년 원/달러 환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내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따른 원화 강세 요인 등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16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하락요인이 작용 할 것이나, 미국의 견실한 경기회복세 및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제한되며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될 전망이다.

## (2) 국내경제 실적 및 전망<sup>2)</sup>

### ■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 효과가 있는 상반기에는 3.0%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경제성장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2016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6%로 전망된다.

2016년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로 전망되며, 2015년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2.2%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상반기 증가율(2.4%)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경기 불확실성 증대가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이라

2) 포커스 뉴스, "한국금융연구원 "올해 2.6% 성장...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2016.8.22

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 1.2% 증가로 추측했다.

# <주요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3.3	2.3	2.9	2.6	3.0	2.2	2.6
최종소비지출	2.0	2.0	2.9	2.4	2.7	1.1	1.9
(민 간)	1.7	1.6	2.7	2.2	2.4	0.4	1.4
총고정자본형성	3.4	2.4	5.2	3.8	4.2	△0.6	1.8
(건 설)	1.1	0.9	6.6	3.9	10.2	1.6	5.9
(설 비)	6.0	5.4	5.2	5.3	△3.5	△5.3	△4.4
(지적재산)	5.4	1.4	1.6	1.5	1.7	1.1	1.4
총 수 출	2.0	0.0	1.5	0.8	1.2	△3.4	△1.1
총 수 입	1.5	1.8	4.6	3.2	2.5	△5.5	△1.5

주 : 2016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KIF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포커스뉴스 (2016.8.22.)

### 3.1.2. 2015년 섬유산업 실적 및 2016년 전망

#### (1) 2015년 실적

##### ■ 생산: 급격한 내수 위축 및 수출 감소로 둔화

섬유 생산은 내수부진 및 수출 둔화가 심화되고 해외 생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생산 지표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였다.

내·외수 부진 장기화 및 오더 감소로 제직, 편직, 염색가공 등 생산활동 부진이 심화되었고, 특히 화섬은 중국 등 경쟁국의 생산 확대와 경쟁심화로 가동률 조정을 통해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면방은 해외 이전 가속화와 방적설비 감소 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

의류는 오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저가 수입의류가 증가하는 반면, 최근 10년간 고성장을 유지해 온 아웃도어는 공급과잉 및 판매부진에 따른 업계의 재고 가중,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 압력부담이 커졌다.

업계의 재고 누적에 따른 감산 및 내수패션 부진 지속으로, 공격적인 생산 확대보다는 효율 강화를 위한 재고 소진에 주력하면서 재고는 감소하였으나 공장가동률은 지속 하락하였다.

##### ■ 내수: 국내 실물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부진

실질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경기 부진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의류 소비하락이 의류 생산용 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섬유산업 전반의 극심한 내수 부진을 초래하였다.

명절과 신학기 특수이 기대에 못 미친데다 6~7월 메르스 사태에 의한 소비재 수요 타격으로 섬유 내수경기에 한파가 몰아쳤다.

다만 10월 초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내수 패션업체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내수 패션경기가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다.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불변기준, 전년동월비 %): (1월)△3.7→(3월)△4.3→(6월)△10.4→(7월)△2.3→(9월)△0.5→(10월)△6.4→(11월)△4.2→(12월)△4.6

##### ■ 수출: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해외생산 전략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글로벌 교역 둔화 및 섬유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세 기록

2015년 섬유류 수출은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섬유원료, 화섬사, 화섬직물 등을 중

심으로 중국, EU, 중동 등 주요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0.2% 감소한 143.1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 생산기지의 탈중국 동남아 투자 확대는 대중 수출의 주력 품목인 섬유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의 대중 수출을 줄이는 대신,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 국으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생산기지 전환에 따른 베트남 등 대동남아 수출 확대보다 대중국 수출 물량 감소가 더 커서 수출에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2015년 섬유류 수출물량(266만톤)은 전년대비 2.9% 감소했지만, 수출단가(5.39\$/kg)는 7.6% 하락하였다.

\* '15년 주요 수출품목 (억불, 전년대비 증감률 %)

- 편직물(35.2, △10.6), 인조장섬유직물(20.3, △11.8), 의류(19.5, △4.5), 기타직물(18.5, △11.1), 기타섬유제품(14.3, △9.2), 인조섬유화이버(11.0, △15.2), 인조장 섬유사(10.9, △7.5), 면사(2.3, △20.7)



<베트남 투자 국내 주요 섬유패션기업>

■ 수입: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으로 지속하락

2015년 섬유류 수입은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소비 부진과 국내 섬유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섬유소재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금액기준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3.3%)를 나타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기타섬유제품 수입이 전년 수준에 그쳤으며, 인조장섬유사, 면사, 면직물 등 섬유소재는 내수부진과 원료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이태리 등으로부터 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섬유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	금 액	15,954	15,936	7,199	7,108	14,307
	증감률	(2.3)	(△0.1)	(△10.1)	(△10.3)	(△10.2)
수입	금 액	13,520	14,658	6,464	7,993	14,456
	증감률	(12.8)	(8.4)	(1.2)	(△3.4)	(△1.4)
무역수지		2,434	1,279	735	△885	△149

자료: 한국무역협회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 (2) 2016년 전망

### ■ 글로벌 여건 변화와 수출

중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 섬유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의 수출 구조(2015년 기준)는 섬유원료, 원사, 직물 등 섬유소재 수출비중이 74.6%를 차지하며,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 등 최종재 수출비중이 25.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수출은 주로 현지 진출한 한국업체의 가공무역용 섬유소재 조달에 기인하는데, 중국의 저성장에 따른 생산 감소 및 수출 저하는 국산 섬유소재의 중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간소비에 의존하는 의류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량 증가, 중국의 첨단 생산설비 도입에 따른 원사 및 직물의 품질 수준 향상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섬유소재의 중국 현지 조달을 높이고,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수출국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섬유소재 경쟁력이 한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근접한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져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한국 섬유소재 주력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해외생산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으로 봉제의류, 의류용 직물 등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가 전망된다. 중국의 점진적인 인건비 상승,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국내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생산기지의 탈중국, 남아 투자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남아의 섬유소재 국산화가 과거 중국이 보였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면 수출확대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봉제업체와 섬유소재 업체간 동반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현지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 소재의 조달비중을 높여가고 있어 한국 섬유원사 및 직물 수출 확대도 제한적일 수 있다.

#### ■ 생산: 내수출하 부진 및 낮은 수출 증가세로 소폭 감소세

섬유 생산은 수입이 급증하고, 연간 수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미증에 그치면서 하반기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내수 성장을 면사, 화섬사 생지 등 섬유소재와 의류 수입품이 견인하면서 국내 생산은 다소 위축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의 해외생산 투자가 봉제에서 면방, 직물 등 소재로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설비 축소 및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원유, 원면, 화섬원료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저환율 기조 유지로 섬유원료 및 소재 조달 여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 내수: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에 따른 섬유 내수경기 회복세로 하반기에 증가세 전환 하나 연간으로는 소폭 증가 전망

섬유 내수는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저유가 지속, 소비자 물가안정 기조, 고용 개선 및 가처분소득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나, 전반적인 섬유 내수의 성장세는 여전히 수입 증가세가 주도적이다.

품목별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으로 의류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의류생산용 섬유소재 수요도 다소 회복될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활동 회복으로 건축, 생활용품 등 수요산업의 섬유 수요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 수출: 연간 1.0%의 증가세 시현 전망 - 기능성 원단 및 교직물 수출 회복예상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 EU 등 선진권 경기회복에 따른 섬유 및 의류 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對선진권 수출 감소폭 완화 및 봉제의류 생산국의 의류 수출 확대에 따른 국산 섬유소재 수입수요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저유가 및 원/달러 환율 약세 기조 유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제약으로 큰 폭의 증가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저성장 기조로 섬유수요가 둔화되고,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급률 제고, 중국의 동남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제약할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 타결로 한국 패션의류 제품의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섬유소재 수요는 지속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섬유소재(섬유사 및 직물)는 자급률 향상과 수출 부진으로 수요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섬유사 수출 회복 지연이 예상되지만, 베트남 등 아세안지역 수출은 수요와 오더 증가로 섬유직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패션브랜드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의류 수출도 증가를 전망한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수요 증가와 TPP 영향, 주력품목의 관세 양허폭 확대로 기능성원단 및 교직물 등의 수출 회복이 예상된다. 섬유제품은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해외 진출 확대로 의류제품 수출이 늘고, 비의류용 기타섬유제품 수출도 증가될 전망이다.

■ 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 천연/기능성,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수요 확대

섬유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세 및 소득 증가가 실현되면서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내수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섬유 수입은 해외생산 의류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섬유 원자재 가격 및 물가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들의 채산성 개선을 위한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천연/기능성 면사, 화섬사, 생지, 염료 등 섬유소재의 수입 비중도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 3.2. 2016 패션산업 시장동향

### (1) 저성장 기조에서도 내수 “40조 시대”가 시작

지난 2001년부터 10여년간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던 한국패션시장이 211년부터 저성장기를 맞이하면서 5년 만에 40조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8년 IMP의 기저효과와 결과, 2000년부터는 매년 5.9%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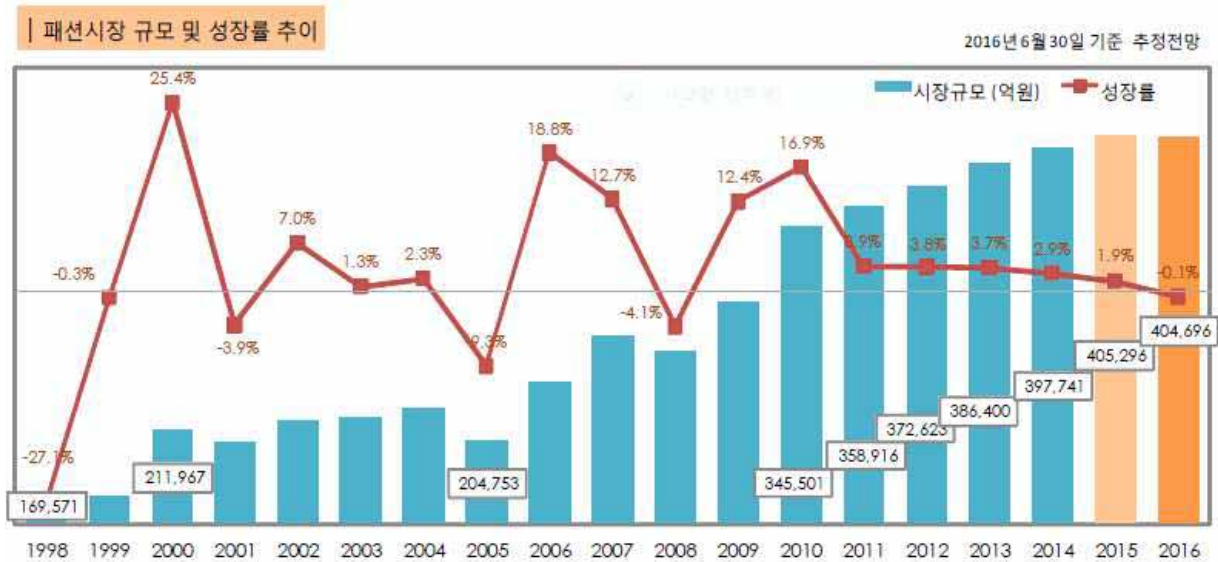
2000년 초반 캐주얼시장이, 2000년 후반 수입명품시장이 성장동력이었으며, 2010년 이후는 스포츠 아웃도어 시장이 그 뒤를 이었으나, 2010년부터 새로운 신성장 동력 부족으로 시장은 침체기에 돌입하였다.

2010년부터 유행하였던 스포츠아웃도어시장이 점차 쇠퇴기를 맞이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잠재시장 내지 대체시장 발굴이 부족하였던 결과였다.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패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패션마켓트렌드(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6) - Fashion Intrend 추정모델  
(주)패션시장규모는 의류를 비롯하여 가방·신발품목을 포함한 전체를 일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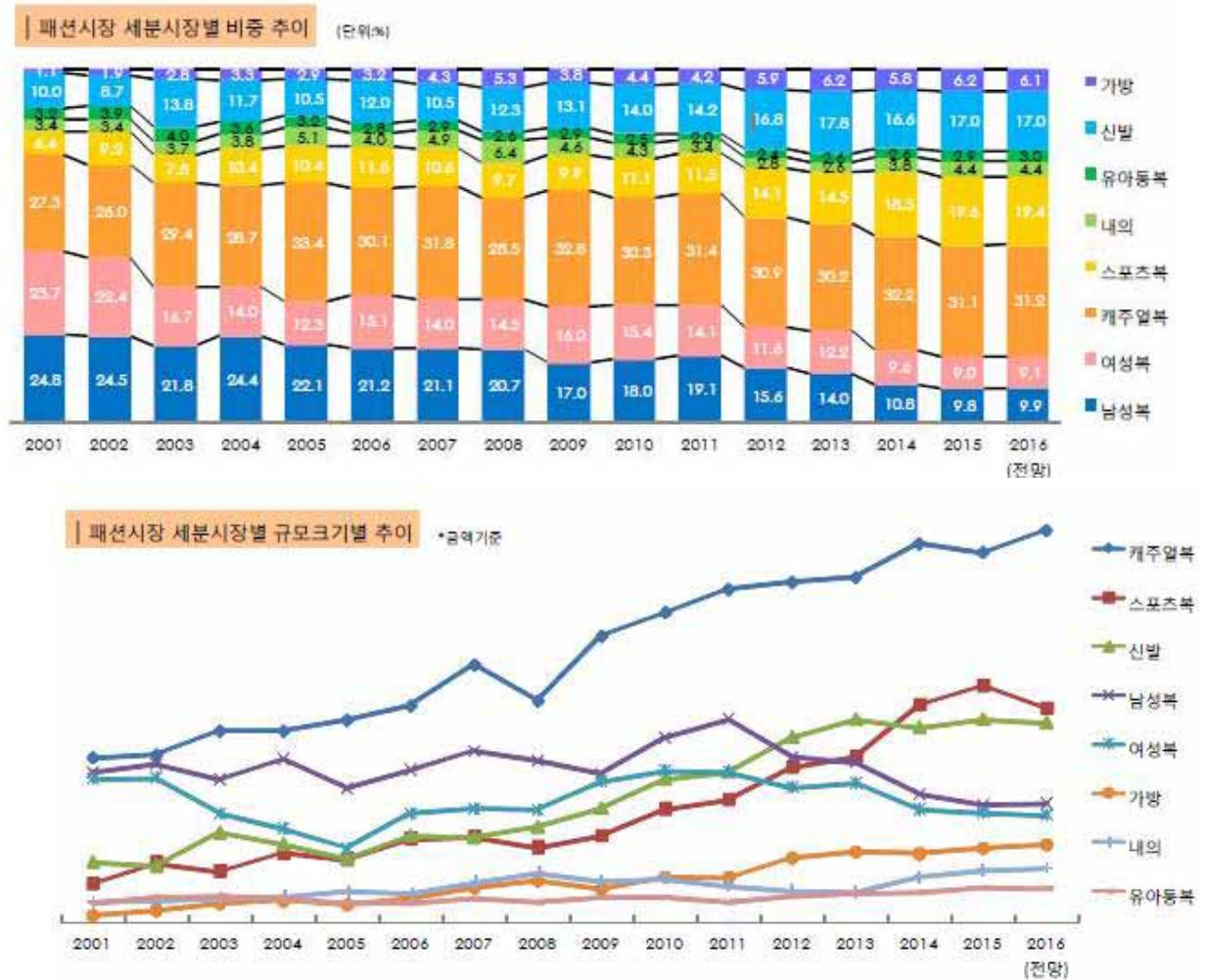
### (2) 패션시장은 스포츠복 시장에서 캐주얼복 시장으로 주도권 전환

5년간 시장성장을 주도하였던 스포츠복 시장에서 캐주얼복 시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남·여성 시장 모두 캐주얼복 시장이 강세이며, 남성시장은 여성시장에 비하여 스포츠복이, 여성시장은 남성시장에 비하여 내의, 신발, 가방시장이 우세에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스포츠복 시장은 5년 연평균 성장률이 15.8%로 초고속 성장하였다. 남성복과 여성복시장이 각각 마이너스 8.7%, 6.2%를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장기간 ‘등산’이라는 카테고리 시장을 유지하던 아웃도어 스포츠복 시장은 내추럴 패션유행의 회귀와 소비자의 등산 품목에 대한 피로도 적재로 이제 성숙기를 넘어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반면 지난 2000년대 연평균 8.2%대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캐주얼복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 5년간 3.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던 캐주얼복 시장이 스포츠아웃도어의 트렌드와 스트리트 패션 감성 그리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통합한 컬처캐주얼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 <세분시장별 비중 및 규모크기 추이>



자료: 패션시장규모조사(패션인트렌드, 2016)

### (3) 新소비트렌드인 ‘가치소비’와 ‘작은 사치’

내수 의류 소매판매가 ‘15년 3분기 누적기준 성장률이 -0.6%로 부진. 국내 소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1인 가구와 싱글족 급증으로 소비패턴이 ‘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짐. 필요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기호’에 따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에 대한 애착이 커져 작은 사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고급품을 사고 싶다는 소비 욕구와 경제적인 제약이 맞물리면서 ‘작은 사치’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하여,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어중간한 중가 위주의 브랜드는 정 상가 판매율 감소와 재고자산 부담 확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 (4) SPA 브랜드의 열기 점차 안정화

소비 양극화 진행에 따라 애매한 중가 브랜드가 위축되었고 브랜드력 높은 고가 상품 또는 SPA 브랜드 위주로 소비가 몰렸으나, 최근 ‘가치 소비’, ‘슬로우패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SPA 브랜드에 대한 우려와 구입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12년 이후 주요 SPA 브랜드 국내 매출액에서 점차 완화되는 성장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실용적이며 고품질의 의류 브랜드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고 악세서리 등 카테고리 확대와 신규 브랜드 런칭 등 사업 다각화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 (5) 캐주얼, 스포츠, 잡화의 관심과 여성복 및 남성복 비중의 축소

최근 의류시장의 복종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적 강자였던 여성복, 남성복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캐주얼, 스포츠(아웃도어, 골프 포함), 잡화의 비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더 다양한 가격과 정보로 증대된 여행, 캠핑 등 여가활동과, 건강지향의 일상생활속에서의 간단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캐주얼 아이템, 패션 잡화 등을 통해 자신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복종별 성장성이 상이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복 시장은 소비양극화 현상에 의해 온라인·SPA 브랜드와 해외 고가 브랜드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일상복의 캐주얼라이징 현상으로 백화점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여성복의 시장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남성복 역시 젊은 층은 정장세트보다는 단품 구매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장년층에서는 스포츠 및 골프웨어가 주요 아이템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남성복의 판매가 과거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여성복 및 남성복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서브 브랜드 런칭, 정장제품의 스타일리쉬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성장 정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6) 아웃도어 보다는 급부상하는 ‘애슬레저’ 시장

스포츠시장 내 한 축인 아웃도어 시장은 2013년의 시장규모가 6.9조원(성장률: 25.1%), 2014년 시장규모가 8조원(성장률: 16.0%)으로 추산되는 등 타 복종 대비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과거대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경쟁심화에 의한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편안한 캐주얼, 일상생활로 무난한 스포츠의 이중적인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스포츠

시장은 2015년 봄처럼 일었던 레쉬가드를 기반으로 한 해양 스포츠와, 애슬레저 트렌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애슬레저 마켓에 대해, 2015년 데상트코리아의 ‘엠브로’를 시작으로, 하반기 컨버스크리아의 ‘컨버스’, ‘글로벌 브랜드’ 그룹의 ‘스파이더’, 룰루레몬코리아의 ‘룰루레몬’, 팰엔엘의 ‘엘르스포츠’등이 런칭되었으며, 2016년에는 젯아이씨 의 ‘엘레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의 ‘엠리밋’, 네오미오의 ‘디아도라’등이 런칭되었으며, 휠라코리아의 ‘휠라’는 2015년 250개 매장에서 2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2016년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판촉 활동 중이다.

서하브랜드네트웍스의 ‘카파’는 25% 신장한 1천억원의 매출을 2016년 책정하고 매장 수를 180개로 늘리고자 하였으며,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는 보합 선의 3천억원의 매출 목표를 수립했으며 ‘스케처스’는 1천억원 돌파를, 젯아이씨의 ‘엘레쎬’는 런칭 첫해 2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7) ‘골프웨어’, 핫 트렌드로 부상

고급스러운 캐주얼로 전환가능한 골프웨어가 가두점 시장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골프웨어는 한정된 시장 규모에서 치열한 경쟁이 치러지는 레드 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업체간의 시장 주도권 싸움과 볼륨을 기반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브랜드 힘 키우기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수출기업과 패션업체들이 골프웨어 런칭을 앞다투어 하고 있으며, 아웃도어에 몰려들었던 가두점들이 골프웨어로 눈을 돌리며 공급이 달릴 정도로 전세가 역전된 상황으로, 이는 골프웨어 시장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 (8) 내의는 SPA, 아웃도어, 애슬레저 등에 의해 시장 잠식, 홈쇼핑 기반 브랜드의 선전

내의시장은 유니클로 등 SPA 의 이너웨어 확장과 아웃도어의 기능성 내의, 애슬레저 트렌드에 의한 내의와 베이스 레이어의 영역붕괴 등으로 타복종의 내의업계 잠식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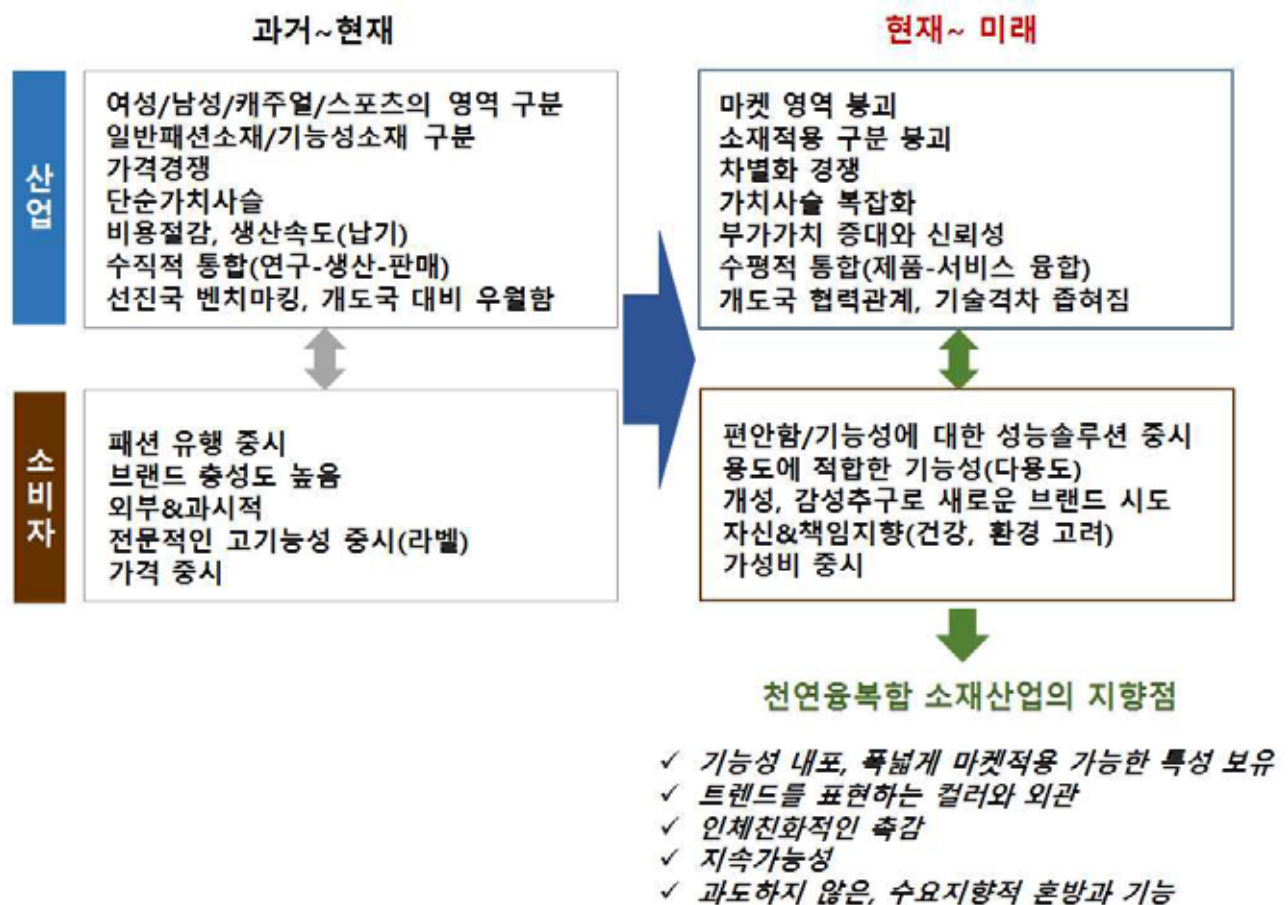
기존 내의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리점을 주요 유통채널로 전통적인 국내 브랜드를 전개하였던 상위업체들의 경우 외형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 3.3. 천연융복합 소재산업의 시사점

융복합 소재는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소재라 정의될 수 있다.

패션에서의 천연융복합 소재는, 천연 소재와 합섬 소재의 양분된 산업적, 상품적인 가치를 높이고, 마켓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패션적인 특성과 기능성적인 특성을 마켓과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품차별화 기획 기술과, 첨단 분야와의 병행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편안함/다용도/기능성/친환경의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타겟을 고려하여 진화하는 원사, 조직, 가공의 특성을 분석하며, 환경에의 책임을 지향하는 기업의 단기, 장기적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천연융복합 소재산업의 지향점>

# 4.

## 천연융복합 소재트렌드

- 4.1. 글로벌 소재의 조직 트렌드
- 4.2. 천연융복합 소재 기획 방향

## 4.1. 글로벌 소재의 조직 트렌드

본 섹션에서는 천연융복합 소재트렌드의 조직과 외관의 기획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응용가능한 글로벌 소재트렌드를 우븐과 니트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1718FW와 18SS에 병용할 수 있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 4.1.1. 우븐(캐주얼&포멀) 소재트렌드

#### (1) 섬유& 원사

##### ■ 시티 & 컨트리 트위드

전원 풍의 아우터웨어 트위드로 전통을 기념한다. 클래식 체크와 스트라이프는 강렬한 부클레, 넵, 셔닐 원사로 강화되고, 울 및 합성 혼방 소재에 손으로 짠 러스틱 특성을 더한다. 컨트리 감각은 따뜻하고 유기적인 팔레트에 영향을 주고, 샤프한 컨템포러리 아이템과 코디시 앞선 룩을 완성한다.



## ■ 부드러운 볼륨감

자켓과 아우터웨어 컬렉션은 복슬복슬한 브러시드 표면의 조밀하고 포근한 모직 소재로 구성된다. 울, 모헤어, 아크릴 구성으로 넉넉한 볼륨감을 더하고, 부드러운 루프 부클레, 슬러브사, 말드 로빙 원사로 가벼움을 선사한다. 세브런과 하운즈투스 패턴은 흐릿하고 불규칙한 텍스처로 변형해, 내추럴하면서도 공예적인 미학을 추구한다.



## ■ 내추럴 액센트

캐주얼 셔츠 원단은 내추럴한 넵과 슬러브 원사를 액센트로 사용하고, 불완전한 표면으로 바탕을 장식하고 리폼 특성을 전한다. 브러시드 플란넬 양면 체크와 스트라이프, 코튼 중량의 거친 우븐 평직에는 불규칙한 멀티컬러 또는 배색 스페클을 더한다.



## (2) 프린트 & 패턴

### ■ 레트로

자켓과 상하복은 스포티한 방향을 추구하고, 사토리얼 및 레트로 참조를 혼합한다. 조밀한 투톤 자카드와 컬러 우븐 도비 패턴은 입체적인 피케, 마틀라세, 신축성이 들어간 구김처리, 질감 있는 노벨티 원사로 대비감을 선사한다. 엘라스테인은 코튼,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 등의 혼방 소재를 기능성 감각으로 업데이트한다.



## ■ 두드러지는 체크

뽀뽀한 버전과 브러시드 버전의 우븐 플란넬은 돋보이는 어반 특성으로 셔츠와 하복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전통 코튼 타탄과 오버체크는 네온으로 구성된 원색의 충돌 팔레트로 앳된 스테이트먼트를 연출하고, 큼직한 크기는 반향적인 엣지를 선사한다. 폴리에스테르와 비스코스의 부드러운 구성은 여성복 셔츠에 적합하다.



## ■ 새로운 그래픽

캐주얼한 코튼 셔츠는 새로운 그래픽 미학을 추구하고, 전통 체크에서 벗어나 남성복과 여성복에 창의적인 매력을 불어넣는다. 마이크로 기암은 프리즘 버전으로 변신하고, 양면 이중직 플란넬은 기하학 블록으로 타탄과 그리드 레이아웃을 끌어주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이 같은 효과를 강조한다.



## ■ 어반 카무플라주

카무플라주가 남성 및 여성 캐주얼 자켓, 셔츠, 상하복에 영감을 제공하고, 아웃도어 스포츠 영향에 어반 감각을 불어넣는다. 코튼 및 폴리에스테르 자카드는 전통 패턴은 물론 스트라이프, 폴카도트로 그래픽 업데이트를 더한다. 순수 실크 바탕과 쿨트 효과로 이 테마를 보다 화려하게 업데이트한다.



## ■ 수공예 태피스트리

트위드에서 더 경쾌한 감각으로 접근해 공예품 감각으로 업데이트된다. 컬렉션은 볼드 컬러, 오버사이즈 스트라이프로 활기를 더하고, 말드 및 넵사로 튼튼한 표면을 추구한다. 자카드는 정교한 스트라이프와 가는 원사로 보다 세련된 옵션을 제공한다.



### (3) 구조

#### ■ 구김간 표면

불규칙하게 구김이 간 텍스처와 볼륨으로 캐주얼 테일러드 의상과 상하복을 구성하고, 재미있는 요소와 스포츠 요소를 베이식 아이템에 접목한다. 시어셔커 및 꺾인 직조 구조로 마이크로 킴에 활기를 더하고, 하이 트위스트 크레이프 원사는 변화하는 골지로 스트라이프를 완성한다. 폴리에스테르와 엘라스테인은 코튼 및 울에 편안하고 일상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 ■ 삼브레이 셔츠

캐주얼한 인디고 셔츠 소재는 멀티 특성을 추구한다. 삼브레이 해치 효과가 핵심이고, 핀 스트라이프, 폴카도트, 도비 마이크로 패턴 등의 장식효과를 짙은 인디고, 색바랜 슬레이트 바탕에 더한다. 코튼 소재는 가는 슬러브 원사로 은은한 질감을 추가하고, 라리오셀, 텐셀은 실크같은 촉감을 제공한다



#### (4) 표면 & 가공

##### ■ 색바랜 유틸리티

문지르고 샌드블래스트 처리한 표면으로 워싱 룩을 표현하고, 남성 및 여성 컬렉션에 적합한 캐주얼한 스트리트 스타일 아이템에 컨템포러리 유틸리티 방향을 제시한다. 건조한 파우더 텍스처는 블리치, 희석된 초크 파스텔, 뉴트럴로 물들어 산업풍 워크웨어 감각을 제공한다. 라이오셀은 조밀한 코튼을 대체하는 가벼운 옵션을 선사한다.



## ■ 브리시드 체크

초기 및 뉴트럴 체크가 울 및 울 같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부드러운 플란넬 바탕에 더해지며 레트로 룩을 제공한다. 볼드 마드라스, 강염, 새도우 체크는 복슬복슬한 브리시드 및 가공된 표면 텍스처로 한층 부드러워지고, 편안한 캐주얼 아우터웨어와 자켓 소재에 고급스런 촉감을 추가한다.



## ■ 클래식 컴포트

중간 무게의 캐주얼 소재에는 부드러움이 핵심으로 포근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트와 상하복을 촉감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고급스런 코튼 웨일 및 니들 코드는 파일 및 넵 피케와 어우러지고, 은은한 투톤 색상의 전원풍 뉴트럴로 유틸리티 드릴 소재를 업데이트한다.



## ■ 거친 데님

데님은 거친 표면과 강조된 직조 구조를 드러내며, 있는 그대로의 산업풍 룩을 전한다. 터프한 가공 및 넵 코튼 원사를 사용한 활기 넘치는 감각으로 깊고 질감있는 흙색, 와플, 래티스 구조를 구성하고, 걸려서 뜯겨진 듯한 핀스트라이프 기법으로 색다른 특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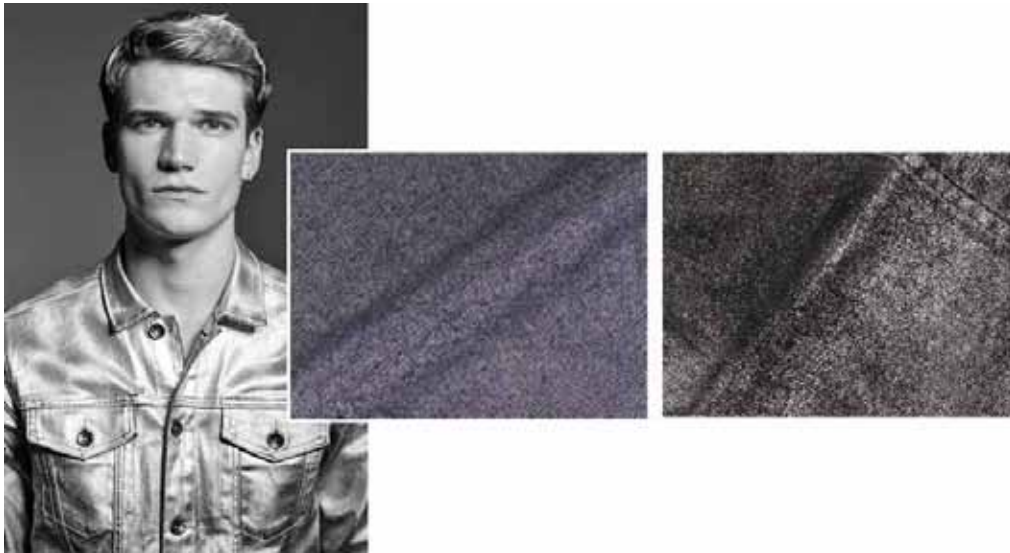
## ■ 세련된 프루프 가공

스포츠웨어가 계속해서 여성복 컬렉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합성 프루프 소재는 세련된 어반 매력으로 스포티한 기능성을 추구한다. 엘라스테인,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경량 소재는 우아하고 매끄러운 느낌이며, 종이같은 크러시 표면은 가벼운 반사 효과를 제공한다. 차분한 시티그레이와 덕에그 블루로 세련된 분위기를 강화한다.



## ■ 확산된 쉬머

화려함이 쉬머 표면에 영감을 제공하고, 캐주얼 코튼, 신축성 코튼 소재에 이브닝웨어 매력을 강화한다. 미드나이트 블랙과 잉크 바탕은 실버 스프링클 코팅을 흡수하고, 문지른 메탈릭 호일은 전면 처리로 보다 앳된 룩의 임팩트를 선사한다. 메탈릭 및 루렉스 원사로 은은한 효과를 연출한다.



## 4.1.2. 니트(저지) 소재 트렌드

### (1) 섬유 & 원사

#### ■ 색감많은 트위드

컨트리 트위드 룩이 은은한 혼방 및 조화로운 컬러 믹스로 등장해 스펙클 멜란지, 넵, 스페이스 다이 효과를 선사한다. 이 고급스런 테마는 블루, 퍼플, 그린 등의 따뜻한 식물성 팔레트로 물든 캐시미어, 울, 리넨 혼방에 반영된다. 슬라우치 크루넥, 코티건, 에지 투 에지 스타일을 위한 포근한 룩을 제공한다.



## ■ 로프티 내추럴

강렬한 입체감이 이 포근한 룩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에어 스펀 울 및 폴리아미드 혼방, 야크, 메리노, 알파카에 촉감적인 스티치와 스페이스 다이 효과를 더해 로프티 브러시드 및 헤비 게이지 룩을 완성한다. 스페이스 다이, 소프트 멜란지, 노출된 부편, 애니멀 효과 및 양면 자카드는 러스틱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과장된 비율이 핵심이다.



## ■ 부드러운 에칭

소형 플라메, 데님, 스페이스 다이 룩은 골지, 슬러브 룩, 플리스로 살짝 오므라든 텍스처가 더해진다. 데님 룩은 브라이트 컬러로 물들고, 배색 블랙 및 인디고 톤은 레드, 크림, 핑크와 함께 조합해 흐릿하고 에칭된 회화 효과를 전하고, 캐주얼 상하복, 유연한 팬츠, 슬라우치 크루 스웨터 및 가디건에 사용한다.



## (2) 프린트 & 패턴

### ■ 노티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룩이 계속해서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티셔츠, 튜닉, 타이트 드레스 및 탑에 접목된다. 인디고, 그레이, 모노크롬, 그린, 퍼플 등의 짙은 겨울 팔레트와 말드, 스페이스 다이 효과를 사용해 멀티컬러 스트라이프에 부드럽고 보다 질감이 살아 있는 룩을 더한다.



### ■ 정밀한 반복 패턴

소형 자카드 패턴은 시즌을 초월한 핵심 남성복 룩에 잘 어울린다. 클래식 그리드, 셰브런, 체크 반복패턴은 머서라이즈 가공된 뽀뽀한 면의 촉감으로 간소하게 유지된다. 대형 기하학 및 아즈텍 패턴은 남성 폴로 셔츠, 티셔츠, 브이넥 스타일에 부드럽고 매트한 코튼 마감으로 더욱 캐주얼한 룩을 선사한다.



## ■ 테피스트리 플로럴

화려한 플로럴 룩은 다마스크 플로럴, 플록 벽지 효과와 같은 화려한 대형 인테리어 원단에서 영감을 얻는다. 에칭 룩은 새틴 마감으로 은은한 양각 효과를 연출하고, 메탈릭 원사는 부드러운 벨루어와 대비를 이루며 촉감이 살아 있는 데이/나이트웨어 룩을 완성한다. 다크 팔레트는 어두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이는 스마트 캐주얼 및 이브닝웨어에 완벽하다.



## ■ 화려한 레트로

촉감과 변형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레트로 패턴 룩에 풍부한 가을 느낌을 더한다. 울과 코튼의 대비감을 통해 흐릿한 디지털 자카드와 루프백 저지 패턴으로 질감을 완성한다. 대형 패턴은 브러시드 울과 비스코스 원단으로 변형된 룩을 선보이고, 평평하고 빛나는 촉감에 매끄러운 코튼과 비스코스 원사를 사용해 글리치와 멜란지 효과를 더한다.



### (3) 구조

#### ■ 텍스처 클래식

헤링본, 핀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클래식 수트소재 디자인에 차분한 그레이, 브라운, 섬세한 파스텔 톤으로 은은한 룩과 촉감을 더한다. 브러시드 및 펠트 처리된 표면을 한면 또는 양면 구조에 더해, 패턴에 조화롭게 혼합된 특성을 더하고, 라운지웨어와 상하복에 세련되고 고급스런 터치를 가미한다.



## ■ 양면

양면 저지는 계속해서 컨템포러리 스포티 룩의 핵심으로 자리하며 코튼과 울 혼방에 멀티 시즌 감각을 더한다. 본디드, 켈트, 골지, 자카드 룩은 데님 톤 및 톡톡 튀는 핑크, 레드, 터코이즈 등의 브라이트 톤으로 산뜻해진다. 스트라이프 골지, 수채화 색상의 스페이스 다이 및 셰브런 패턴으로 자켓과 셔츠소재 룩을 업데이트한다.



## ■ 마이크로 켈트

스포츠 켈트 룩은 촘촘하고 거친 감촉의 코튼과 합성 혼방 소재로 구성되고, 소형 그리드, 셰브런, 골지, 원형 구조로 세련되게 업데이트된다. 자켓, 크루넥, 롤넥 아이템의 컨템포러리 미니멀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이 컬러 팔레트는 딥 블루, 세이지 그린, 더스키 핑크의 차분한 컬러로 물들어 세련된 스포츠 럭셔리 느낌을 선사한다.



## ■ 구불구불한 기하학

오므라든 처리, 컬트, 입체적인 룩이 진화해 탑, 자켓 품목의 컨템포러리 실루엣에 사용된다. 그래픽 룩은 대형 하운즈투스, 그리드, 체크 형태로 등장한다. 모노크롬 룩은 울, 비스코스 원사의 대비감을 통해 텍스처를 더한다. 플리츠와 골지는 구김가고 불규칙한 형태로 등장해 매트한 코튼 저지에 촉감을 더한다.



## ■ 컬러 시어

부드러운 스페이서 효과, 스트라이프, 섬세한 번아웃 및 포인텔 디자인으로 시어 저지를 업데이트한다. 컬러 스트라이프와 메시 효과로 그래픽 느낌을 연출하고, 스포티 폴로 탑과 티셔츠에 반영한다. 골드, 레드, 네이비, 화이트, 더스키 핑크 팔레트를 색다른 컬러블로킹과 조합하거나, 단색으로 사용해 클래식 느낌을 완성한다.



#### (4) 표면 & 가공

##### ■ 메탈릭 믹스

데이웨어가 나이트웨어로 유입되면서, 골드, 레드, 블랙 마감의 화려한 메탈릭 룩은 캐주얼 룩에 세련된 화려함을 더한다. 화려한 메탈릭 원사와 유연한 코팅 룩은 광택 골드, 실버, 퓨터 색상의 입체적인 켈트, 자카드, 골지, 스트라이프 효과로 업데이트되어 보다 세련된 느낌을 완성한다.



## ■ 빛나는 광택

고급스런 펠라이즈 및 새틴 마감처리로 구조감 있는 저지를 장식한다. 촘촘한 골지, 셰브런, 엠보싱 표면은 플로럴, 불규칙한 플리츠와 같은 부드러운 룩과 함께 광택 또는 매트한 파우더 마감처리를 더한다. 라일락, 더스키 로즈, 블루, 베리 톤과 같은 화려한 가을 색상은 이브닝웨어와 파티웨어 룩에 잘 어울린다.



## ■ 벨벳 터치

매끄러운 파일과 벨루어 원단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헤드투토 룩의 벨벳 저지로 캐주얼 레이어와 라운지웨어에 산뜻하게 화려하고 고급스런 느낌을 선사한다. 플리스, 셔닐 원사, 코듀로이, 플록 원단으로 된 부드러운 플러시 저지는 털, 퍼플, 블루 등의 짙은 주얼톤과 실버 그레이로 등장하고, 비스코스, 나일론, 코튼 혼방 소재로 구성된다.



## ■ 보호적인 코팅

탄탄하고 터프한 효과가 더해진 코팅, 본디드, 양면 및 쿨트 룩은 아우터웨어 자켓, 스웨트셔츠, 후드티 등의 스포티 남성복에 잘 어울린다. 밝은 색조에서 딥 차콜에 이르는 조화로운 그레이 톤으로 탁한 실버와 마감처리된 메탈릭 코팅을 펠트 및 울 저지의 안감에 더해 컨템포러리 어반 룩을 완성한다.



## 4.2. 천연융복합 소재 기획 방향

새로운 표현주의를 지향하면서, 편안하고 기능성, 고품질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장기적으로 겨냥하며, 다양한 활용도를 갖춘 업데이트되고 세련된 원단에 포커스를 맞추어, 천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는 패션와 스포츠/아웃도어 마켓 영역이 붕괴된 캐포츠 스타일, 아웃도어/스포츠 마켓에 캐주얼 라이프스타일이 믹스된 애슬레저 스타일은 All day Sports 커뮤니티 패션을 주장한다.

많은 세계적인 박람회에서, 소비자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추세를 반영한 캐주얼 요소에 집중된 소재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연한 스트레치 구조, 넵, 브러시드 표면, 통기성있는 초경량 구조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한편, 또한 개성있는 표현주의 소비자를 겨냥하여 정교한 표면 가공으로 디자인 감성을 살린 소재들로 다분화되고 있다.

본 섹션에서는 특히 천연융복합 소재의 조직기획을 위한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한다.



### 4.2.1. 표면요철감

크로스오버 접근방식으로 기능성과 천연 특성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합성 안감, 고기능, 방수 마감처리의 홈스펀 텍스처가 등장한다. 한편, 가벼운 나일론에는 내추럴 톤으로 자연스런 표면 효과를 더한다.

#### (1) 텍스처 트위드

트위드 룩킹은 클래식과 내추럴 테마 및 니트와 우븐 모두에 적용되는 SS, FW 중요한 조직이다. 손으로 짠 공예적인 룩이 시즌의 노벨티 트위드에 영감을 제공하고, 이는 중간 중량의 자켓 및 드레스 소재에 필수로 자리한다.

혼합 색상의 부클레, 슬러브사, 뉘사 등의 은은한 노벨티 원사로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 폴리아미드, 아크릴, 코튼, 울 등 부드러운 촉감의 멀티 혼방 소재에 은은한 장식과 촉감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 (2) 입체적 내추럴 텍스처

클로케 특성, 퍼커 처리한 오므라든 우븐 및 볼륨감 있는 니트로 시각적 흥미를 더하고, 드레스, 편안한 테일러드 소재, 섬머 아우터웨어의 표면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실크, 코튼, 나일론 원사 혼방은 유기적인 골지, 잔잔한 물결, 기하학 양각에 은은한 광택을 더하고, 엘라스테인 스트레치는 편안한 느낌과 핏을 제공한다.



### (3) 도회적인 말드

럭셔리 레저와 퍼포먼스 원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남성적인 도시적 감각이 담긴 세련된 저지 원단이 지속된다.

멜란지 원사는 톡톡 튀는 스포티 브라이트가 살짝 들어간 세련된 그레이 색상의 저지에 사용된다. 가볍고 통기성 있는 이중 편물 코튼과 폴리에스테르는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신축성으로 강화된다.



### (4) 천연의 불규칙함

거친 감촉의 마감처리는 특히 코튼과 리넨 혼방에 참신함을 선사하며, 세련된 특성에 캐주얼 감각을 더한다.

강한 트위스트 효과를 더한 촘촘한 크레이프는 블라우스와 드레스 소재에 매트하고 파우더 같은 표면을 더한다. 뽀뽀한 구김과 왁스 처리한 베이크 크리즈는 테일러드 및 아우터웨어 원단을 편안하게 업데이트한다.



### (6) 돋보이는 인디고

일상복 베이식과 캐주얼 원단은 특히 S/S 시즌의 인기 데님 룩으로 자리한다. 특히, 자카드와 도비 우븐 원단에 들어간 빈티지 동양 감각의 소형 패턴으로 샴브레이 셔츠와 드레스 소재를 장식한다. 코튼/엘라스테인 혼방에 스케치 느낌의 멜란지 룩을 더해 캐주얼 및 스포츠 개발에 사용한다.



#### 4.2.2. 감각적 촉감과 광택

중간 무게의 섬머 코튼, 코듀로이, 양면저지와 인조 스웨이드는 부드러운 플러시 감촉과 브러시드 표면으로 강화되고, 캐주얼 원단을 럭셔리 영역으로 이끈다.

##### (1) 유연한 평직

액체 같은 움직임이 가벼운 중량과 중간 중량의 깔끔한 여성복 원단에 강세를 보인다. 실크/나일론 혼방으로 탄력 있고 몸에 착 붙는 드레이프 효과를 강화한다. 매끈한 트윌과 은은한 표면 패턴으로 광택에 세련된 텍스처를 더해 깔끔한 상하복, 테일러드 드레스, 수트에 기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생생한 컬러로 더욱 모던하게 접근한다.



##### (2) 벨벳터치

남녀 포멀 및 캐주얼 테일러드 의상을 위한 촘촘한 코튼 또는 중간 무게의 코튼은 고급 스런 터치를 더한다. 우븐 구조는 브러시드, 벨벳 같은 표면으로 부드러워지고, 전통 트윌에 장식적인 기하학과 다마스크가 더해져 표면이 더욱 풍성해진다. 편안한 느낌의 샌드, 스톤 팔레트는 기능적인 일상의 매력을 전한다.



### 4.2.3. 광택을 더한 생기있는 표면

빛나는 광택과 윤기가 로프티 저지 스트라이프, 텍스처 린넨 수직 원단, 거즈 같은 코튼 레이스, 자카드 등의 일상복 원단에 더해지고, 의외의 메탈릭 원사가 추가되어 과장된 트윌, 바스켓 직조, 새기 필쿠페 표면이 살아난다.

#### (1) 춘추용에 적합한 오프 화이트

가볍고 비치는 코튼, 실크, 합성 혼방이 특히 춘추용으로는 패션 필수품으로 자리한다. 필 쿠페와 방향이 뒤바뀐 원사 구조로 은은한 화이트 온 화이트 패턴을 완성한다. 대형 스트라이프와 추상적인 모티브 번아웃이 가장 강세를 띄며 등장해 사락사락한 블라우스와 드레스에 로맨틱한 천상의 분위기를 더한다.



#### (2) 데이터임 쉬머

캐주얼한 테일러드 소재로는, 자연스러운 러스틱 감각이 담긴 원사는 메탈릭 원사로 생기를 얻고, 일상복에 적합한 은은한 광택을 연출한다. 매트/광택 대비감으로 은은한 기하학 패턴을 연출해 표면에 추가의 흥미를 더한다. 거친 감촉과 염색하지 않은 천연 색상으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다.



### (3) 선베이크 코퍼

선베이크 브릭, 코퍼 등의 따스한 톤이 고풍택 팬시 원단에 강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원단에는 러스틱한 화려함이 더해진다. 화려한 패턴의 루렉스가 대거 들어간 자카드와 필쿠페 오간자 직조에 광택 실크와 가죽으로 균형을 더해, 어느 실루엣이든 눈부신 화려함과 입체감을 선사한다.



### 4.2.3. 은은한 캐주얼 효과

#### (1) 조밀한 내추럴

광택 룩에 촘촘한 직조 표면을 접목해 세련된 캐주얼 원단을 제작한다. 폴리에스테르/아세테이트 혼방은 매끈한 마감처리와 함께 가벼운 촉감을 제공하고, 낮은 울 함유량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편안함을 더한다. 사토리얼 룩은 흐릿한 그레이와 은은한 해치 효과로 강화된다.



#### (2) 소프트한 말드 효과

클래식 말드가 분산된 컬러로 거의 흐릿하게 마감처리된다. 계속되는 웰빙 및 편안한 라이프스타일 지향과 함께 라운지 웨어, 애슬레저 스타일의 진화는 말드소재를 더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다양한 말드 효과를 대체하는 옵션으로, 이중 레이어 우븐의 선형 패턴은 대비되는 색상 활용과 텍스처를 연출한다. 어두운 바탕을 뚫고 나오는 컬러감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골지 표면으로 평평하면 서도 깔끔한 룩을 제공한다. 방수, 방풍, 통기성 등 고도의 기능성 또한 갖춘다.



### (3) 천연과 기능성의 투톤효과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재활용 원단, 건식 염색 기법이 특히 스포츠 아웃도어의 하이 스트레치 및 소프트 셸에 나타난다.

그래픽 투톤 컬러가 양면으로 들어가며, 조밀하게 마감된 셸은 최적의 유연성과 신축성으로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고, 모든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고도의 기능성으로 방수, 방풍, 체온 조절, 통기성 및 악취 제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2016), 산업패러다임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2016), 2016 의류산업전망

키움증권(2016), 2016 패션산업전망

한국기업평가(2015), 2015 의류산업동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6), 한국패션마켓트렌드 2016 상반기

한국의류산업협회(2016), 의류수출입동향

포커스 뉴스, “한국금융연구원 "올해 2.6% 성장…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2016.8.22.

[www.wgsn.com](http://www.wgsn.com)

Performance Days 박람회(1718FW, 18SS)

Premiere Vision 박람회(17SS, 1718FW)

주 관 : ECO 융합섬유연구원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기 획 : 크리에이티브 팩토리